케인즈의 理論과 思想에 관한 小考

趙　　淳*

〈目　次〉

I. 序　言
II. 케인즈理論의 評價의 基本觀點
III. 케인즈理論의 革新的 側面
IV. 金融資本市場의 不確實性과 有效需要의 變動
V. 케인즈의 資本主義經濟觀 및 政策觀
VI. 結　語

I. 序　言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그의 화려한 生涯를 통하여 순수한 경제이론에 관하여는 그리 많은 著作을 남겼다고 볼 수는 없다. 現實問題에 관심이 많았던 이 天才는 時事性 있는 政策問題에 관하여는 尨大한 量의 論文과 팜플렛을 남겼다. 그러나 『貨幣改革論』,(1) 『貨幣論』(2) 및 『一般理論』(3) 등을 제외하고는 經濟理論에 관한 그의 著作은 著書와 論文을 합하여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一般理論』 이후에 그는 自身의 理論을 敷衍 내지 辯護하기 위한 論文을 겨우 3篇 밖에 쓰지 못하였다. 1946年에 별세할 때까지 實務와 政策에 많은 參與를 하는 동안, 그에게는 理論的인 著作을 남길 겨를을 별로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

거의 아담·스미드나 데이비드·리카도에 比肩되는 이 經濟學의 巨星(4)은 물론 그리 옛날 人物은 아니다. 經濟學者에 의한 經濟學者의 傳記 가운데서도 가장 卓越하다고 할 수 있는 그의 傳記를 쓴 弟子인 해로드(Sir Roy F. Harrod)는 최근까지 생존하고 있었고 그의 首弟子格인 칸(Richard Kahn)이나 로빈슨(Joan Robinson) 등은 아직도 生存해 있다.

그의 理論的 著作의 數가 그리 많지도 않고, 그는 거의 當時代의 人物임에도 불구하고

* 本硏究所 硏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敎授

(1) *A Tract on Monetary Reform*, 1924.
(2) *A Treatise on Money*, 1930.
(3)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4) 해로드는 그의 傳記에서, 「나는 그(케인즈)를 스미드나 리카도와 같은 班列에 놓기는 하지만, 經濟學者로서의 그의 星座가 그들의 것처럼 무게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라고 말한 바 있다. R.F. Harrod, *The Life of John Maynard Keynes* (1951), Penguin Book, 1972, p. 551.

그의 학문의 내용과 이론의 본질에 대한 評價가 매우 區區하다는 사실은 놀랄 만하다. 케인즈의 理想과 哲學은 經濟學의 趨勢가 一方的으로 技術化의 過程을 치닫는 동안에 거의 忘却되어 있고, 어떤 特殊한 分析上의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케인즈의 眞意가 어디에 있었던가, 또는 그의 理論의 特性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해서는 심한 해석이 차이가 있다. 케인즈의 經濟學은 해마다 幾何學的으로 增産되는 經濟學의 著作의 數와 比例하여 改造 粉裝되어, 흔히 케인즈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만 가지고는 그의 理論의 眞面目을 도저히 알길이 없게 되었다.

케인즈의 理論은 다른 經濟學者, 이를테면 마르크스나 슘페터의 理論보다도 그 主旨를 把握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面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그는 理論을 위한 理論의 전개를 시도한 적이 거의 없다. 그는 經濟學은 그 학문의 本質上, 하나의 「道義科學」(moral science)이라고 생각하였다.[5] 1920年代와 1930年代에 발표된 그의 論說을 보면 대부분 그 당시의 經濟政策이나 國際經濟秩序 및 이들을 理論的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經濟理論의 基礎的 假定 및 그 現實性 등에 대한 反論과 異議를 제기 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어떤 理論의 些末的인 부분에 대한 論理的 檢討를 일삼은 적은 거의 없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에게는 時間과 精力의 浪費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1911年부터 1945年까지 34年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英國經濟學會誌인 *Economic Journal*의 編輯責任者였으리만치 탁월한 理論家였지만, 그가 選定한 論文은 어디까지나 現實問題와 관계가 있는 것이 우선되었다. 그는 經濟學이——사실 經濟學뿐 아니라 다른 學問分野에 있어서조차도——現實에 대한 適合性(relevance), 즉 社會를 改善하기 위한 現實適用性을 떠나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여러번 披瀝하였다. 이러한 그의 學的 態度를 반영하여 그의 理論에는 자연 論理的 飛躍이 容認되고 섬세한 설명이 생략되는가 하면 抑揚이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다. 自身의 主著인 『一般理論』의 理論的 性格에 관하여 힉스(J.R. Hicks)에게 표명한 다음과 같은 말은 그의 學風의 一端을 雄辯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는 나의 新著에서 어떤 것에 대하여든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으려 합니다. 나의 目的은 어떤 基本的인 意見을 가급적 강력하게 남들에게 納得시키는 데 있는 것이며, 그 이상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6]

(5) 그는 經濟學이 「道義科學」이라는 견해를 여러번 表明하였다. 經濟學의 本質에 관한 그의 見解는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經濟學은 理論과 事實, 直觀的인 想像과 現實的인 判斷이 人間의 知性에 알맞도록 混合되어 있는 가장 우리 마음에 드는 道義科學이다.」 램지(Frank Ramsey)에 대한 그의 追悼文 參照.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第10卷, 第29章, p. 335.

(6) 1935年 6月 31日字, 힉스에게 보낸 書信 參照. *Collected Writings*, 第13卷.

그에게는 直觀이 오히려 分析보다 앞서 있었고, 理論은 흔히 그 直觀을 正當化하기 위한 說得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古典學派의 理論이든지, 그밖에 누구의 理論이든지, 자기의 直觀과 意見에 符合하고 그것이 說得의 目的에 합당한 한에 있어서는, 서슴치 않고 그것을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修正과 改造를 하되, 不必要한 理論을 펴는 일은 거의 절대로 하지 않았다.(7)

둘째, 이와 같은 實用主義的인 理論觀을 가졌던 그는 그의 基本理論을 바꾸는 것을 例事로 하였고 政策勸告도 적어도 外面으로는 항상 一貫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資本主義經濟와 그 展望에 대하여는 매우 一貫된 直觀을 가지고 있었으나 經濟理論이나 具體的 政策勸告에 있어서는 가끔 一貫性을 잃은듯이 立場을 바꾸었다. 예를 들어 『貨幣論』이 出刊된지 얼마되지도 않았을 때, 그는 그책의 理論的 妥當性을 믿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8) 具體的인 政策에 관해서도 그는 1920年代 上半期부터 디플레이션의 惡影響에 관하여 一貫된 見解를 가지고 있었으나 論調의 抑揚이 항상 고르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이 間接的으로 그의 眞意를 公知시키는 데 대한 障碍가 된 경우도 있는 것같다.

本稿의 目的은 케인즈의 經濟學에 대한 나름대로의 몇가지 觀察을 開陳하는 데 있다. 케인즈의 原典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되는 理論과 思想을 그가 살던 時代的 環境에 비추어, 筆者 나름대로 把握하고 그의 死後 四半世紀 이상이 지난 오늘의 狀況에서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敎訓과 示唆의 一端은 어떤 것인가를 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近來, 케인즈의 理論과 思想에 관하여는 많은 卓越한 評價作業이 활발히 행하여지고 있으며(9) 케인즈理論에 관련된 著作은 거의 無數라고 할만큼 浩瀚하다. 이들을 빠짐없이 網羅하여 검토할 능력이 筆者에게 없을 뿐 아니라, 케인즈의 經濟學을 올바로 理解하기 위하여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19세기의 經濟理論(10)에 관한 筆者의 造詣 또한 매우 限定되어 있다. 筆者는 本稿가 다루고자 하는 制限된 範圍內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文獻도 제대로 消化 檢討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케인즈와 같은 위대한 思想家에 대한 評價를 행한다는 것은 筆者와 같은 魯鈍한 後學으로서는 畢生의 사업으로서도 만족스러운 成果를 거두기 어려운 일임을 自認하면서도 斷片的

(7) D.E. Moggridge, "Keynes: The Economist," in Moggridge (ed.), *Keynes: Aspects of the Man and His Works*, Macmillan, 1974 參照.

(8) F.A. Hayek, *Choice in Currency*,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1976, pp. 10-11.

(9) 文獻은 대단히 많으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는 Robert Clower [4], Axel Leijonhufvud [33], J.R. Hicks [13], P. Davidson [5], J.A. Kregel [30], V. Chick [3], H.P. Minsky [36, 37] 등이 있다.

(10) Kenneth Boulding, "After Samuelson, Who Needs Adam Smith,"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3, No. 2, Fall 1971.

이나마 果敢히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한 訓詁的인 취미에 緣由한 것은 아니다. 筆者의 견해에 의하면 經濟學의 궁극적인 목적은 現代社會를 이해하려는 데 있다 하겠고 現代社會의 하나의 類型인 現代資本主義社會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에 관한 몇몇 위대한 思想家의 思想과 學問에 대한 理解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마르크스, 슘페터, 케인즈, 하이에크 등의 思想과 理論에 대한 理解 없이 現代社會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과 比肩할 만한 學問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眞理가 客觀的인 事象에 의하여 立證될 수 있는 自然科學에 있어서조차, 옛날 思想家의 思想의 내용을 探索한다는 것은 단순한 訓詁 이상의 의의를 지닐 수 있다. 不透明한 現象을 透視하는 데 있어, 直觀과 靈感이 흔히 分析을 先行하여야 하는 社會科學에 있어서는 學問에 대한 接近方法이 오히려 斯界의 偉大한 思想家의 思想과 學問의 檢討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捷經일 수가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에 와서 마르크스나 슘페터, 케인즈, 하이에크 등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한갓 「學史」나 「學說史」에 대한 尙古的 思考의 發顯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케인즈에 대한 硏究는 現代資本主義社會의 行程의 本質에 대한 나름대로의 見解를 가지고자 하는 學徒에게는 바람직한 學的 過程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케인즈에 대한 연구는 매우 가치있는 學的 努力의 一部分이 된다고 생각하며, 本稿는 이와 같은 認識에 立脚하여 쓰여진 것이다.

經濟學에 있어서는 完全히 그리고 永久히 普遍妥當한 眞理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위대한 학자라고 하더라도 直觀과 靈感에는 모두 나름대로의 偏見이 있고 抑揚의 屈曲도 없을 수는 없다. 마르크스나 슘페터, 케인즈, 하이에크의 理論도 完璧한 것이 못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관하여 硏究한다는 것은 이들의 理論의 卓越한 점과 아울러 그 誤謬와 瑕疵에 대한 見解를 가지기 위함이며 이들의 「眞意」에 대한 考證을 함과 아울러 이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時代의 視角에서 이들의 理論이 주는 含蓄된 의미를 찾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케인즈에 관한 硏究도 케인즈의 理論 그 自體에 대한 理解를 구할 뿐 아니라, 케인즈 以後의 世界經濟의 展開에 비추어 그 理論이 어떤 示唆를 우리에게 주는가를 評價하는 데 그 目的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稿에서는 케인즈의 理論의 어떤 一部分, 이를테면 流動性選好理論이나 消費函數 등에 관한 分析的 側面에 대한 세밀한 檢討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遠視的」인 입장에서 케인즈가 살던 時代와 環境에 비추어 그의 理論의 特性과 要點이 어디에 있는가를 觀察하는 데에 論議의 焦點을 두고자 한다. 그리하여, 具體的으로 本稿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論議를 전개하고자 한다. 第II節에 있어서는 케인즈의 理論이 과연 「革

命的」인 側面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를 論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筆者는 케인즈의 理論은 많은 革新的인 側面을 가지고 있으나, 理論으로 未完成인 부분이 많고, 따라서 케인즈 革命은 하나의 未完成革命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第III節에 있어서는 케인즈理論의 核心이 金融資本市場에 있어서의 不確實性의 作用이 有效需要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過程에서 景氣變動을 일으킨다는 命題에 있다는 것을 敷衍 說明하고자 한다. 第IV節에서는 케인즈의 沈滯論的인 資本主義經濟觀에는 많은 誤謬가 있다는 것과 케인즈의 經濟政策觀에는 많은 短見이 있어 後世에 累를 끼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論하고자 한다. 終節에서는 要約과 結論을 담고자 한다.

II. 케인즈理論의 評價의 基本觀點

케인즈는 1920年 이후로 많은 獨創的인 著述을 내었다. 그는 1936年의 『一般理論』 이전에도 旣存理論의 基本的 假定에 대하여 斷片的이나마 많은 批判을 가한 바 있다. 그는 그의 獨創的 學風의 總括을 이루는 『一般理論』을 종래의 經濟理論과는 완전히 다른 革命的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버나드·쇼(George Bernard Shaw)에게 준 書信에서 다음과 같이 述懷한 바 있다.

「나는 지금 經濟理論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당장에는 몰라도 앞으로 10年 동안에는 세상에서 經濟問題에 관하여 생각하는 思考方式에 거의 革命的인 轉換을 가지고 올 것으로 믿습니다. 나의 新理論이 충분히 普及되고 그것이 政治나 一般의 感情이나 熱情과 얽혀질 때 실제의 행동과 世上事에 대하여 끝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특히 마르크스主義의 리카도的 基礎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11)

『一般理論』은 그가 기대한 대로 마르크스主義의 리카도的 基礎에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打擊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분명히 經濟學界에 前無後無한 反響을 불러 일으켰다. 그가 예측한 대로, 그의 新理論은 당장에 그 時代의 經濟學界에 의하여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으나 第2次大戰 이후에는 거의 完全히 經濟學界를 風靡하여 힉스(J.R. Hicks)가 말한 대로 20世紀의 第3四半期는 케인즈의 時代라는 印象을 주었으며(12) 45°線과 IS-LM 등의 그림을 통한 그의 理論의 要約은 巨視經濟理論의 中心을 이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1935年 1月 1日付.
(12) J.R. Hicks, *The Crisis in Keynesian Economics*, New York: Basic Books, 1974, p. 1.

케인즈의 經濟理論은 주로 經濟政策의 樹立에는 有功하지만, 理論에 있어서는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많은 正統派經濟學者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다. 케인즈의 理論은 「一般」 理論이 아니라 新古典學派의 普遍的 理論 가운데 흡수될 수 있는 하나의 「特殊」理論이라는 힉스의 評價는 이제 主流經濟學者들에 의하여 그대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賃金·物價의 伸縮性이 있는 經濟에 있어서는 「피구效果」에 의하여 完全雇傭의 달성은 理論上 항상 可能하므로, 케인즈의 理論에 새로운 것이 있다면 賃金이나 物價가 硬直的이라는 現實世界의 사실을 經濟理論에 도입한 정도라는 評價는 피구, 파틴킨, 모딜리아니 등에 의하여 定說이 되다시피 되었다. 『一般理論』이 理論面에서 粗雜하고 未熟하다는 주장은 케인즈를 祖述한다는 케인즈派(Keynesians)의 學者들에 의하여 널리 公表되었다. 심지어 케인즈 自身도 그의 主張이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解說書도 있는가 하면, 近來에 와서는 『一般理論』은 결국 쓰여질 필요가 없는 册이었는데, 名聲에 汲汲한 著者(케인즈)의 機會主義的 動機와 偏狹한 英國的 視野의 結合에 의하여 學界의 一般을 眩惑시키기 위하여 出刊된 一種의 僞作이며, 이것은 많은 害毒을 英國의 經濟學界와 經濟政策에 끼치고 있다는 人身攻擊에 가까운 辛辣한 非難이 퍼부어지기도 한다.(13)

케인즈의 理論에는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견해에 의하면, 어떤 理論에 새로운 것이 있기 위하여는 어떤 具體的인 새로운 法則을 발견하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假說을 세워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立脚하면 케인즈의 理論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가 있다. 케인즈理論은 不完全雇傭下에서의 均衡이 可能한 理由를 설명하고자 하는 理論인데, 그 理由는 投資의 對利子率非彈力性이나 流動性陷穽에서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賃金과 價格의 變動이 伸縮的이라면 「피구效果」의 作用에 의하여 不完全雇傭은 論理的으로는 적어도 完全히 解消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케인즈의 理論은 결국 新古典派의 理論과 별로 다른 것이 없게 된다. 따라서 케인즈理論에 어떤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賃金이나 物價의 變動이 伸縮的이 아니고 硬直的이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케인즈의 理論은 이렇게 보면 결코 一般理論이 아니라 하나의 特殊理論, 즉 賃金이나 物價가 非伸縮的이라는 假定에 의해 不完全雇傭下에서의 均衡이 成立할 수 있는 理論이며, 이렇게 볼 때 新古典派理論과 케인즈理論에는 아무런 本質的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케인즈의 理論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見解는 經濟學의 性格이나 方法 그리고 이 分野에

(13) 例를 들어, Harry G. Johnson, "Keynes and British Economics," in Milo Leynes (ed.), *Essays on John Maynard Keyn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및 Elizabeth S. Johnson and Harry G. Johnson, "The Social and Intellectual Origins of the General Theory,"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6, No. 3, Fall 1974.

있어 眞理의 發見過程이 自然科學에 있어서와 하등 다름이 없다는 前提 위에 서 있다. 이 見解에 의하면 眞理는 學者들이 하나씩 둘씩「새로」發見하여 쌓아 올림으로써 오늘의 知識은 어제의 그것보다도 完全하며 來日의 知識은 오늘의 그것보다도 完全하게 되는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 대체로 自然科學에 있어서는 이러한 認識이 비교적 妥當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14] 經濟學을 包含하는 社會科學에 있어서는 眞理의 發見過程이 꼭 이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어제의 眞理가 오늘의 眞理와 같지 않으며 韓國에 있어서의 眞理가 美國에 있어서의 眞理와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經濟學은 그 本質에 있어 學者들이 새로운 眞理를 하나씩 發見하여 하나의 眞理의 殿堂을 建造하는 面도 물론 있으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視角, 새로운 直觀, 새로운 價値觀, 새로운 分類方法 등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物理學에 있어서는 새로운 眞理에 대한 實證이 완전히 낡은 眞理를 代替하지만 經濟學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완전한 實證이 있을 수 없고 하나의 實證으로 인하여 그와 반대되는 理論의 妥當性의 缺如가 증명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케인즈理論의 새로운 점은 不完全雇傭下에서의 均衡成立에 관한 論理的 내지 實證的 證明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그 理論이 含蓄하는 새로운 視角, 새로운 直觀, 새로운 分類方法, 또는 새로운 價値觀 등이 旣存理論과 어떻게 다르냐에서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케인즈理論은 여러가지 面에서 旣存理論과는 현저하게 다른 革新的 側面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케인즈의 個個의 理論이 모두 旣存理論과 비교하여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旣存理論을 類推하면 케인즈의 個個의 理論的 命題가 모두 含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케인즈의 理論의 全體的 骨格은 얼마든지 새로운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15] 케인즈의 理論은 이를테면 消費性向, 流動性選好, 投資의 限界效用 등의 個個의 理論이——이들 理論은 모두 새로운 觀點을 많이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 筆者는 평가하지만——再分類되어 總需要와 總供給의 水準을 分析하는 理論의 骨格을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이 全體的 理論의 骨格은 旣存理論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으로 評價하여야 할 것이다.

經濟學이란 아직도 그 發達의 初期에 있으며, 經濟學說史를 보면 대부분 適宜한 槪念의 構成의 歷史였다고 볼 수 있다.[16] 이를테면 古典學派經濟理論이 모든 生產要素를 土地, 資本, 勞動으로 分類하고 모든 生產費를 이들 3大生產要素에 대한 報酬로 分類하였을

(14) 그러나 自然科學에 있어서조차도 科學의 發達은 항상 이 過程만을 밟는 것은 아니다. T.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1962 參照.

(15) 이 點에 관하여는 Harrod, 前揭書, pp. 548-549 參照.

(16) Harrod, 前揭書, p. 548.

때에 經濟分析은 크게 進展하였다는 것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케인즈의 分類는 家計部門과 企業部門으로 國民經濟를 分類하고 家計部門에 있어서의 消費는 消費函數에 의하여 企業部門에 있어서의 投資는 投資의 限界效率(및 利子率)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으로 看做하여 이에 立脚하여 有效需要理論을 建造하였다. 이 理論的 建造物의 全體를 構成하는 個個의 建材——이를테면 消費函數, 投資의 限界效率——가 설사 旣存理論에서 능히 類推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 理論의 全體的인 骨格을 旣存理論과 비교할 때 케인즈의 理論은 旣存의 낡은 思考의 轉換을 可能케 해 준 創意에 넘친 理論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찌기 슘페터는 勞動價値說을 評하여 말하기를 勞動價値說은 그것이 옳지 않다기에 앞서 經濟現象을 說明하는 데 있어 대단히 무딘 分析道具라고 말한 바 있다.(17) 아마 이 말은 自然科學者들에게는 奇異하게 들릴른지는 모르나 이것은 經濟學의 發展이 아직 自然科學의 精緻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어느 一面으로 보면 經濟學에 대한 科學的 方法의 適用의 어느 限界를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經濟學은 아직도 論理的 精緻 보다도 使用上의 便利가 중요시되어야 한다. 케인즈의 理論은 論理的으로 整然할 뿐 아니라 매우 便利하며, 케인즈 이후의 經濟學者치고 케인즈의 理論의 骨格을 어떤 의미에 있어서든지간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다.

케인즈理論——다른 理論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의 理論的 革新은 어떤 普遍妥當한 具體的인 假說의 有無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 理論的 骨格全體의 本質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筆者는 케인즈理論이 部分的으로는 많은 瑕疵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8) 全體的으로는 확실히 旣存의 理論을 넘어선 革新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評價하고자 한다. 다만 「케인즈革新」이 아직 確固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의 理論을 構成하고 있는 部分的 命題가 지나치게 直觀的이고 論理와 事實에 符合되지 않는 點이 많기 때문이며 이 部分的 命題의 脆弱이 케인즈理論의 全體的 革新要素를 흐리게 하고 그것을 旣存理論의 骨格으로 改造 彩裝하는 데 一助가 된 것은 可惜한 일이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케인즈革命은 失敗한 것이 아니라 未完成狀態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같다.

『一般理論』을 구성하고 있는 部分的 理論은 대부분 直觀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 많고 論理的 精緻와 事實과의 符合面에 있어 未盡한 점이 많다. 케인즈 自身도 이 점을 인정한듯 그는 그의 著書의 讀者들이 應分의 好意를 가지고 읽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그의 『貨幣論』

(17) Schumpeter, *Ten Great Economists* (1951), Galaxy Book, 1965, p. 28.

(18) 그의 『一般理論』의 殿堂을 구성하는 3大支柱라고 할 수 있는 消費函數理論, 投資의 限界效率理論 및 流動性選好理論을 바탕으로 하는 利子理論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의 視角으로 볼 때 모두 중대한 瑕疵를 지니고 있다. 後述 參照.

에 대한 하이에크(F.A. von Hayek)교수의 書評이 실린 *Economica*에 그는 많은 註釋을 달고 그 餘白에 다음과 같은 獨白을 남긴 바 있다.

「하이에크는 어떤 著者든지 讀者로부터 당연히 期待할 수 있는 最小限의 〈好意〉를 가지고 내 책을 읽지 않았나 보다.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 책의 의미를 터득하지 못할 것이며, 또 내가 옳은지 아닌지 알 수도 없을 것이다. 그는 분명히 나의 잘못을 캐내려는 熱情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그 熱情이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19)

『一般理論』이 출간된 지 거의 半世紀가 지났고, 資本主義經濟도 그 당시와는 比較할 수 없으리만큼 달라졌다. 우리가 케인즈의 著作에 대하여 케인즈가 期待한 最小限의 好意를 가지고 評하지 않는다면 케인즈의 理論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올바른 評價가 나올 수도 없다. 그 最小限의 好意란 무엇인가? 여러가지 要素가 있겠지만, 케인즈의 理論의 全體를 把握하고자 하는 理論觀을 가지고 케인즈의 立場에 서서 그를 理解하려고 하는 努力을 말한다. 末梢的인 論理의 展開를 問題視하지 않았으며 部分보다는 全體를 중요시한 그의 著作을 이와는 正反對의 立場에 서서 評한다는 것은 그를 올바로 評價하는 길이 아닐 것이다. 케인즈의 理論은 不完全하나마——後述 參照——하나의 獨特한 비젼(vision) 위에 構築된 理論的 殿堂이며, 그 殿堂은 그것을 構成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벽돌이다. 完璧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殿堂의 特色은 얼마든지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III. 케인즈理論의 革新的 側面

이상에서는 케인즈의 理論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見解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論하였다. 本節에서는 케인즈의 理論의 어떤 側面이 從來의 理論과 비교하여 특이한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도 個個의 部分的 側面보다도 케인즈의 理論體系의 全體的 性格이 어떤 점에서 旣存理論과 다른가를 보기로 한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케인즈의 關心事는 1920年代初半, 『貨幣改革論』을 쓴 1924年頃부터 英國經濟의 復興이었고 英國의 失業問題였다. 이에 대한 그의 政策的 處方은 처음부터 賃金率의 引下라는 당시의 通論이 아니라 一貫하여 自由放任의 拋棄, 貨幣의 管理, 디플레이션 政策의 止揚, 公共事業에 대한 支出, 國內投資의 增加 등이었다. 즉 『一般理論』의 問題意識은 1920年代初부터 있었고 이에 대한 政策手段도 1920年代에 거의 완전히 着眼되었었다. 다

(19) *Collected Writings*, 第13卷, p. 243.

만 이 政策手段을 뒷받침하는 理論이 없었다. 케인즈가 물려받은 理論을 가지고는 도저히 새로운 政策手段의 妥當性을 說明할 도리가 없었다. 그가 물려받은 新古典學派의 理論은 人間의 性格——貪慾, 神經質 등——에 立脚한 普遍的인 法則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考察의 대상이되는 現實經濟의 구조나 성격에 관하여는 아무런 論議도 하지 않는 「에쁘장하게 洗鍊된 技法」[20]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理論을 가지고는 도저히 大量失業의 發生原因과 그가 直觀的으로 着眼한 政策處方의 妥當性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케인즈는 從來의 理論을 脫皮하여 根本的으로 다른 새로운 理論을 開發하고자 「긴 鬪爭」[21]을 展開하였던 것이다. 12年에 걸친 긴 鬪爭의 産物이 『一般理論』이었다.

케인즈의 理論은 우선 그의 周邊의 세계를 觀察하여 그것으로부터 資本主義經濟의 運行의 規則을 이해하고자 한 데에 그의 理論의 가장 큰 特色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直觀的으로 찾은 政策手段의 理論的 妥當性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그는 우선 「에쁘장하게 洗鍊된 技法」에 立脚하여 「無慈悲한 論理」를 展開할 것이 아니라, 우선 現實에 대한 觀察에서 理論의 실마리를 구하고자 하였다.

케인즈의 理論이 立脚하고 있는 여러가지 重要한 觀察, 이를테면 勞動者들이 抵抗하는 것은 實質賃金의 下落이 아니라 貨幣賃金의 下落이라는 命題,[22] 利子率이라는 것은 古典學派에서 말하는 抽象的인 것이 아니라 算術册에서 말하는 金錢貸與에 대한 對價라고 한 것,[23]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貯蓄은 古典學派에서 말하는 것처럼 消費以外의 形態의 支出(즉 投資支出)이 아니라 오직 消費의 減少에 不過하며 自動的으로 投資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한 것,[24] 貨幣賃金水準은 勞動에 대한 需要와 供給에 의하여 결정된다기보다는 大體로 硬直的이며 하나의 歷史的으로 결정된 價格이라는 觀察,[25] 그리고 賃金水準이 物價에 대하여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26] 등은 그가 평소에 重要視하는 直觀에 의하여 수립된 命題들이며, 現實과는 아무런 關係도 없는 抽象的인 假定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다.

理論을 위한 理論이 아니라, 現實에 대한 觀察을 중요시하고 現實問題——이를테면 失業

(20)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 1937. Reprinted in *Collected Writings*, Vol. XIV, pp. 109-123.
(21) 『一般理論』, 序文.
(22) 『一般理論』, pp. 5-18, 특히 p. 14.
(23) "The Theory of the Rate of Interest," in *The Lessons of Monetary Experience: Essays in Honour of Irving Fisher*, 1937. Reprinted in *Collected Writings*, Vol. XIV, pp. 101-123.
(24) 『一般理論』, pp. 210-213.
(25) 『一般理論』, pp. 251-254.
(26) 『一般理論』, 第21章.

——에 대한 解決策을 問題意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케인즈의 理論은 一種의 政治經濟學이며, 케인즈는 처음부터 끝까지 政治經濟學者였다고 볼 수 있다. 古典派經濟學이 國民經濟를 構成하는 各階級에 대한 分配의 問題를 中心으로 理論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政治經濟學이었다고 한다면 케인즈의 理論은 後期資本主義의 不安定性과 그것이 빚어내는 政治的 對處를 中心으로 理論이 展開되고 있다는 點에서 一種의 政治經濟學인 것이다.

政治經濟學으로서의 케인즈理論이 바탕을 두는 現實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指摘될 수 있는 것은 케인즈의 理論은 처음부터 모든 社會에 普遍妥當性이 있는 理論이 아니라 高度로 成熟한 現代資本主義社會에 대한 理論이라는 點이다. 케인즈 이전의 旣存理論은 人間의 행동에 관한 普遍的이고 抽象的인 原理의 演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여기에 있어서는 分析의 單位는 어디까지나 個人이다. 여기에는 勞動組合도 없고 株式市場도 없으며 구멍가게와 株式會社의 區別도 없다.[27] 로빈슨·크루소의 行動을 支配하는 原理가 월街(Wall Street)의 行態에도 또 「고스플랜」의 運營에도 똑 같이 適用될 수 밖에 없다.[28] 이 理論에는 아무런 「制度」도 필요하지 않다. 어떤 制度的 背景을 가지고 있든지 이 理論은 별로 拘碍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케인즈의 理論은 現代資本主義經濟라는 制度的 背景 위에 서 있다. 12年에 걸친 脫出은 經濟理論을 制度 밖으로부터 制度 속으로 끌어 들였던 것이다. 그 制度的 背景을 捨象해서는 케인즈의 理論이 成立할 수가 없다. 어떤 制度的 背景인가? 월街와 같은 高度로 發達되어 있는 金融市場 및 證券市場을 가진 後期資本主義的 制度를 그 背景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케인즈의 理論은 이와 같이 「制度」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制度의 生成, 行程, 및 將來에 관한 分析과 說明을 하기 위한 理論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制度를 스스로의 破滅로부터 救할 것인가에 관한 理論이다. 왜 이와 같은 制度가 나타났는가? 또는 遠視的으로 이 制度는 어디로 가는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說明도 없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케인즈는 資本主義經濟는 長期的으로 沈滯하리라고 豫見하였다. 그러나 그 豫見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直觀的인 豫見이었으며 論理的인 分析을 통한 結論이라고 볼 수는 없다. 케인즈가 勸告한 政策을 쓰면 資本主義經濟는 長期的으로 어떻게 될른지에 대한 說明도 없다. 오직 섬세한 調整(fine-tuning)을 통하여 短期的으로 景氣를 調節할 수 있으리라는 希望과 信念이 있을 뿐 長期的으로 이 制度가 어떻게 變貌하느냐에 관한 깊이 있는 分析은 거의 전

(27) 이 點에 관한 가장 明確한 說明으로는 Armen A. Alchian and William R. Allen, *University Economics*, 2nd edition, Wadsworth Publishing Co., Belmont, California, 1964, p. 14 參照.

(28) Joan Robinson, *History versus Equilibrium*, Thames Polytechnic, Autumn 1974.

혀 提示되고 있지 않다. 이 點이 政治經濟學으로서의 케인즈理論의 큰 弱點이라고 생각된다.

既存理論에는「制度」가 없을 뿐 아니라,「心理」도 없었다.「制度」와「社會」가 前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制度에 作用하는 特殊한 心理가 있을 수 없었다. 이 理論은 將來에 대하여 人間은 확실한 知識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捨象함으로써 現在를 取扱하고 있다. 모든 것이 다 確實한 것으로 假定되고 있다. 人間의 가장 基本的인 心理가 將來에 대한 不安과 畏怖라는 사실과 이것이 現在의 意思決定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기에서는 거의 완전히 捨象되어 있다. 물론 既存理論에도 將來에 대한 不確實性이 전혀 排除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하나, 보통은 어떤 주어진 時刻上에 있어서 將來에 대한 期待는 確實히 算出될 수 있는 것으로 假定되어 있으며, 確率論的인 手法에 의하여 不確實性을 確實性으로「轉換」할 수 있는 것이 전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社會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의 가장 큰 弱點은 將來에 대한 知識에 대한 假定이 너무나 非現實的이라는 데 있다. 人間의 合理性에 대한 그릇된 假定은 확실한 幸福計算이 可能하다는 벤담(J. Bentham)의 功利論에 淵源한 것이다. 이 非現實的인 假定으로 말미암아, 經濟理論——그것이 古典學派의 理論이든 마르크스의 理論이든 간에——에서 推理하는 人間의 行動의 原理는 人間이 將來에 대한 不確實한 展望 속에서 취할 수 밖에 없는 많은 意思決定이 懷疑, 希望과 恐怖 속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捨象하고 있는 것이다.[29]

이에 반하여 政治經濟學으로서의 케인즈의 理論에는「心理」가 있다. 將來에 있어서의 不確實性에 直面하여 人間이 어떻게 行動하는가에 대한 觀察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것은 後期資本主義의 制度的 테두리 속에서 특히 資本市場을 둘러싸고 投資者의 心理的 作用이 經濟主體의 現在의 意思決定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한 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인즈의 理論은 이와 같이「心理」를 빼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一般理論』에 있어서의 3大心理法則(three psychological laws)이 國民總生産이나 雇傭 등의 從屬變數를 설명하는 獨立變數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心理的 要素를 經濟理論의 中心에 놓은 점이 케인즈의 經濟理論을 다른 理論과 가장 두드러지게 다르게 만드는 點이라 하겠다. 여기에는 벤담流의 計算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動機와 期待에 의하여 人間의 經濟生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現實 그대로 認定되고 있는 것이다.

既存理論은 靜態理論 내지 比較靜學의 分析方法을 取한다. 比較靜學이란 말할 나위도 없

(29) 經濟人(economic man)에 대한 假定이 마르크스理論을 포함한 모든 經濟理論에서 共通的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는 P. Drucker, *The End of Economic Man*, New York, 1939 (Reprinted by Harper & Row, 1969) 參照.

이 均衡分析을 中心으로 理論을 展開한다. 均衡의 神話 이것이 케인즈 以前의 正統派經濟學을 지배하고 있었다.

現實을 直視하는 政治經濟學을 한 케인즈의 方析方法은 本質的으로 均衡分析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現實世界는 항상 움직이는 것이며 均衡을 벗어난 狀態에 있기 때문이다.

케인즈의 動態分析은 흔히 보는 動態分析——이를테면 將來에 대한 確實한 知識의 假定을 抛棄하지 않는 靜態分析의 骨格에다가 形式的으로 時間을 도입하여 均衡經路(equilibrium path)니 均衡成長이니 하는 類의 動態分析——과는 그 性格이 다르다. 무릇 어떤 理論이 실지로 現實社會를 分析하는 데 有用하게 되기 위하여는 그 經濟에 있어서의 技術條件과 社會制度 및 그속에서 生活하는 經濟主體의 心理的 反應을 前提로 하여야 한다. 이들의 與件에 대한 顯示的 默示的 前提가 없는 理論이 올바른 現實分析이 될 수가 없다. 케인즈의 經濟學은 徹底하게 現實世界를 觀察하고 現實問題를 意識하고 이에 대한 政策的 處方을 내리고자 한 點에서 本質的으로 均衡分析과는 거리가 있다. 케인즈는 그의 理論이 均衡理論이 아니라는 點을 『一般理論』의 第1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나는 이 책에서 古典派의 命題는 오직 특수한 경우에만 妥當하고 一般的으로는 妥當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 이론이 妥當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란, 例外的으로 성립할 수 있는 均衡點이라는 限定的인 경우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古典學派에 의하여 假定되고 있는 특수한 경우가 나타내는 특징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經濟社會의 特徵과는 아주 딴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理論을 日常의 사실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 教理는 잘못되고 災害만 結果하게 될 것이다.」

케인즈의 經濟學이 均衡分析이 아니라 動態的 分析이라는 點을 强調하여 로빈슨女史는 케인즈革命의 核心은 人間의 生活이 時間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실히 認識한 데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돌이킬 수 없는 過去와 아직 未知의 將來의 사이에 不斷히 움직이는 瞬間에 人間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認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케인즈經濟學의 中心이라는 것이다.[30]

그러나 로빈슨女史가 말한 바와 같이 케인즈理論이 分析을 歷史的 時間 속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誇張이라고 생각된다.[31] 물론 前에도 말한 바와 같이 케인즈의 理論은

(30) 그는 그의 著作과 論文의 到處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몇개의 例를 들면, J. Robinson and J. Eatwell,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 McGraw Hill, 1973; J. Robinson, *Economic Heresies*, 1971, 日譯版序文 (宇澤弘文譯, 『異端の經濟學』, 日本經濟新聞社, 1973).

(31) 로빈슨女史의 歷史的 模型의 性格에 관하여는 J. Robinson,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Macmillan, 1963, pp. 25-26 參照.

어떤 特殊한 制度와 社會——英國과 같은 後期資本主義社會——와 그 社會에 특유한 經濟主體의 心理를 그의 理論의 前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케인즈의 理論은 本質的으로 動態分析이지만 그 分析方法에 있어서는 均衡理論을 완전히 脫皮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케인즈는 均衡理論을 無用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의 分析과 叙述은 많은 均衡理論의 方法을 그대로 쓰고 있다. 그는 자기의 理論을 「說得」하기 위하여는 서슴치 않고 旣存理論을 援用하였다. 『一般理論』에서는 「不完全雇傭下에서의 均衡」의 狀態의 存在를 證明하기 위하여 『貨幣論』에 있어서처럼 貨幣作用에 대한 動態的 分析으로부터 오히려 後退하여 均衡的 分析方法을 採擇하였다.

新古典學派의 理論은 個個의 企業이나 産業의 生産量과 價格에 관한 理論이다. 이 理論에서는 總生産은 生産能力에 따라 주어져 있고 完全雇傭狀態가 前提로 되어 있다. 이 理論에 있어서는 總需要 및 總供給에 대하여는 아무런 理論的인 檢討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하여 케인즈의 理論은 總需要 및 總生産 특히 前者에 관한 理論이다. 總需要는 消費需要와 投資需要로 구성되어 있는 바 前者는 消費函數라는 心理的 要素에 의하여 後者는 資本의 限界效率이라는 心理的 要素와 流動性選好라는 心理的 要素에 의하여 결정된다.

旣存理論은 實物理論이며, 貨幣理論은 實質的으로는 거의 存在하지 않는다. 물론 旣存理論에도 貨幣는 形式上으로는 얼마든지 存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 理論에 있어서는 貨幣는 대개 모든 다른 財貨와 本質的으로 區別이 없는 또 하나의 財貨로 取扱되고 있다. 例를 들어, 「r개의 財貨($h=1, 2, \cdots\cdots, r$)가 있는 경제에서, 끝의 財貨가 貨幣인 經濟를 생각해 보자」[32]라는 등의 一般均衡理論에는 貨幣가 形式上으로 있기는 있지만, 그 結論은 貨幣가 전혀 없는 經濟나 다름이 없으니, 이런 理論은 모두 貨幣가 없는 實物經濟의 理論이라 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케인즈의 理論은 後期資本主義經濟에 관한 理論이므로, 貨幣는 다만 形式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將來에 있어서의 不確實性이 빚어내는 人間의 畏怖와 期待가 현재의 意思決定을 결정하게 하는 媒介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점에 있어, 케인즈의 巨視理論은 곧 貨幣理論이라 할 수 있다. 케인즈의 思考에 따른다면 貨幣를 떠나서 巨視理論을 論할 수는 없다.

케인즈의 巨視理論, 즉 貨幣理論의 核心은 不確實한 將來에 대한 豫想의 變化가 주로 投資를 통하여 現在의 經濟狀況에 影響을 미쳐서 景氣의 變動을 일으킨다는 데 있다. 만약 將

(32) 이런 식의 模型은 수없이 많지만 一例를 들어, E. Malinvaud, *The Theory of Unemployment Reconsidered*, Yrjö Jahnsson Lectures, B. Blackwell, Oxford, 1977, p. 18 參照.

來에 대한 見解가 모든 경우에 固定되어 있다면 完全雇傭下의 均衡이 항상 可能하지만, 將來에 대한 見解가 항상 變化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均衡」自體가 항상 變化한다는 것, 그리고 將來에 대한 期待가 變化한다는 것은 現在와 將來를 연결하는 고리(環)로서의 貨幣를 媒介로 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變化하는 豫想이 現在의 (經濟)活動에 대하여 미치는 效果에 대한 論議는 貨幣的 見地를 떠나서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33)는 것이 케인즈의 見解였다.

케인즈의 理論은 이와 같이 不確實性의 存在와 그것이 經濟變動에 미치는 影響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케인즈派의 理論模型에 있어서는 不確實性의 存在가 전혀 前提되어 있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役割이 正當히 評價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케인즈의 理論의 核心은 資本市場이 高度로 발달되어 있는 現代資本主義經濟에서 不確實한 將來에 대한 經濟主體의 期待가 貨幣를 媒介로 하여 現在의 意思決定에 대하여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經濟의 現在의 有效需要를 결정한다고 하는 데 있다. 따라서 將來에 대한 期待의 內容에 따라, 現在의 有效需要는 인플레이션的으로 刺戟될 수도 있고 디플레이션的으로 萎縮될 수도 있는 것이다. 흔히 케인즈의 理論은 不況의 理論(depression economics)으로 알려져 오직 失業에 관한 理論에 局限되어 있는 것처럼 해석되고 있다. 케인즈의 資本主義觀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분명히 一種의 沈滯的인 見解를 가지고 있었고, 『一般理論』의 當面問題가 失業이었으므로 그의 理論이 마치 失業理論인 것처럼 해석되고는 있었으나, 論理的 見地로 본다면 그의 理論은 失業과 아울러 인플레이션에도 똑같이 잘 適用될 수가 있는 것이다.

IV. 金融資本市場의 不確實性과 有效需要의 變動

第2次世界大戰 이후 約 20年 동안 世界의 資本主義經濟는 順調로운 發展을 기록함으로써 케인즈理論에 대한 一般의 信任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1960年代後半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國際的 인플레이션과 1970年代에 國際的으로 蔓延한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인하여 케인즈의 理論에 대한 지금까지의 높은 信任은 한꺼번에 霧散되었다. 케인즈의 理論은 이제 過去의 貨幣數量說이 받았던 蔑視와 賤待를 받고 있는 감이 짙다.

케인즈理論의 많은 重要한 部分이 現實性과 妥當性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資本主義經濟에 대한 케인즈의 비젼은 옳지 못한 點이 많았고 그의 政策에 대한 基本觀念 또

(33) 『一般理論』, p. 294.

한 대단히 陳腐한 것이 되고 있다. 그의 理論의 全體的 骨格을 構成하는 個個의 理論은 이제 거의 妥當性이 적은 것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케인즈理論을 구성하는 部分이 점차 妥當性을 잃어간다고 해서 그의 理論의 全體的 骨格이 다 無用之物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第II節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케인즈의 理論은 部分的 視角에서가 아니라 全體的인 見地에서 評價하여야 한다.

케인즈는 1920年代의 英國經濟와 같이 高度로 發達된 資本主義經濟는 長期的으로 沈滯의 過程을 밟을 것이며 短期的으로 失業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不安定要素를 內包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케인즈의 長期的 비젼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今日의 視點으로 볼 때, 그의 觀察은 正鵠을 벗어난 點이 많다는 것이 두드러진다(第III節 參照). 그러나 케인즈理論의 本領은 短期的 理論에 있다. 그의 短期的인 理論은 第II節에서도 본 바와 같이 金融資本市場이 高度로 발달된 現代資本主義(後期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 貨幣的 要因의 作用으로 實物部門에 있어서의 有效需要가 變動한다는 것을 骨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케인즈의 理論은 비단 失業에 관한 理論으로 有用할 뿐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의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理論으로도 매우 有用하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 節에서는 오늘의 狀況에도 잘 適用될 수 있는 케인즈理論의 主要側面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34)

資本市場이 발달되어 있는 現代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많은 個人이나 企業들이 恒時 資產과 負債를 管理하고 있다. 投資者들은 豫期치 않은 理由로 因하여 利益도 보고 損害도 본다. 資本市場에 있어서의 投資者가 損害를 避하고 利益을 얻을 수 있기 위하여는 다른 사람보다 市場의 時勢의 앞날을 더 잘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모든 投資者들은 市場의 時勢의 展望에 따라 資產과 負債를 管理한다. 이것을 投機라 呼稱하며 資本市場에는 언제나 投機가 존재한다. 資本市場에 있어서의 投機는 비단 投機當事者들의 損益을 隨伴할 뿐 아니라 企業의 實物投資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點이 初期資本主義經濟와 後期資本主義經濟의 差異點이라 할 수 있다.

資本主義經濟의 原動力은 投資에 있다. 投資야말로 經濟變動을 惹起시키는 根本要因이 된다. 따라서 投資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무엇에 의하여 影響을 받는가가 케인즈의 政治經濟學의 中核을 이룬다. 케인즈는 資本主義가 발전함에 따라 投資의 誘因이 줄곧 減退한다고 생각하였다.

投資는 將來에 있어서의 利潤에 대한 企業의 期待(expectation)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케

(34) 다음에서 論하고자 하는 要旨는 민스키敎授의 이른바 「金融不安定假說」(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과 類似하다. H.P. Minsky, *John Maynard Keynes*, Columbia, 1975; H.P. Minsky, *The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 A Restatement*, Thames Polytechnic, 1978.

인즈에 의하면 將來의 利潤에 대한 期待에는 두가지가 있다. 短期的 期待(short-term expectation)와 長期的 期待(long-term expectation)가 이것이다. 前者는 旣存生產施設을 사용하여 最終生產財를 생산할 경우에 얻을 것으로 豫想되는 利潤에 관한 것이며, 長期的 期待라 함은 生產施設自體를 변경시킬 경우에 얻을 것으로 豫想되는 利潤에 관한 것이다.(35) 現在에 있어서 企業이 提供할 수 있는 雇傭의 量은 이들 短期的 및 長期的 期待에 의하여 결정되며 投資는 주로 長期的 期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現在에 있어서의 投資는 결코 지난날의 결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將來에 있어서의 生產費 및 販賣額 등에 대한 現在의 期待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케인즈는 누누히 論하였다. 케인즈의 經濟學이 어떤 다른 經濟理論보다도 經濟變動의 原動力으로서의 心理的 要素를 중요시하고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케인즈가 중요시한 心理的 要素 가운데서도 經濟變動의 視角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投資의 限界效率인데 이것은 利潤에 대한 企業의 長期的 期待를 反映하는 것이다.

케인즈는 不幸하게도 長期的 期待를 결정하는 要因을 찾는 데 成功하였다고 할 수 없다. 『一般理論』의 第5章 및 第12章에는 이 長期的 期待에 관한 論議가 있으며, 第12章의 活氣에 넘친 文章으로도 長期的 期待를 形成시키는 要因은 마침내 說明되지 못하고 말았다. 投資當時에 投資의 收益이 얼마나 되는가를 決定하는 要因에 관한 우리의 知識이 극히 薄弱한 까닭이다. 케인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鐵道나, 銅鑛, 纖維工場, 特許藥의 官業權, 大西洋往復의 汽船, 런던市의 빌딩 등의 10年後의 收益을 豫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知識의 基盤은 솔직히 말해서 매우 적고 경우에 따라서는 全無하다는 것을 우리는 認定하여야 한다. 사실 5年後의 일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豫測을 진지하게 試圖하려는 사람은 아주 少數이기 때문에 이들의 行動은 市場을 支配할 수가 없는 것이다.」(36)

결국 長期的 期待를 결정하는 要因이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그는 결국 企業의 投資는 冷靜한 打算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人間의 野性的 衝動(animal spirit)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不可知論的인 結論에 도달하였다.

19世紀의 資本主義가 비교적 순탄하게 發展할 수 있었던 理由는 投資機會가 비교적 많았고 野性的 衝動을 가진 企業家의 供給이 순조로왔기 때문이라고 케인즈는 해석하였다. 또한

(35) 『一般理論』, 第 12章 參照.
(36) 『一般理論』, pp. 149-150.

19世紀에 景氣變動의 起伏이 그리 심하지 않았던 理由는 그 당시에는 企業의 投資資金의 調達이 주로 內部資金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 外部로부터의 調達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資本市場의 發達이 미약하여, 주로 間接金融의 形態를 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케인즈는 생각한 듯하다.

그런데 資本主義經濟가 더욱 發達해가는 과정에서 投資에 관하여 두가지의 서로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制度가 생겨났다. 하나는 企業의 所有者와 經營者의 分離이고 다른 하나는 資本市場의 發達이다. 이 두가지 制度의 발전은 投資의 性格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企業에 의한 實物投資가 野性的 衝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나 19世紀에 있어서나 거의 차이가 없다. 케인즈는 만약 投資가 野性的 衝動에 의해서가 아니라 꼭 正確한 收支打算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면, 投資는 결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했다. 未來에 대해서는 누구도 잘 모른다. 이 어두운 未來에 대하여 勇敢히 危險負擔을 하는 것, 그것이 곧 企業하는 일(enterprising)이며, 그것을 하는 것이 곧 企業家이다. 이것이 케인즈의 企業觀이었다.

後期資本主義經濟에서 長期的 期待의 不確實性이 經濟變動의 不安定性을 加重시키는 根本的 理由는 投資를 위한 資金調達이 이루어지는 資本制經濟의 메카니즘에 있다. 投資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資金이 調達되어야 한다. 만약 投資가 社會主義經濟에 있어서처럼 公的으로 이루어진다던지 또는 資本主義經濟라 할지라도 投資가 企業의 內部資金으로 이루어진다면 설사 그 投資를 뒷받침하는 長期的 期待가 당초의 豫想보다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經濟全體의 不安定要素로 作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경우 投資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投資는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어 改變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投資는 失敗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經濟全體의 不安定性으로 作用하지는 않을 것이다.

後期資本主義經濟에서 企業이 資本市場으로부터 投資資金을 調達하는 데 있어서는 經濟의 不安定性이 적어도 두가지 面에서 助長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資本市場의 발달은 企業의 資金調達을 容易하게 하여 投資를 促進하게 한 동시에 企業에 負債를 增加시켰다. 投資로부터는 利潤이 날 것이 豫想되며 負債의 增加는 元利金의 支拂義務를 惹起시킨다. 負債가 증가함에 따라 企業이 支拂하여야 할 現金의 額數도 增加한다. 이 現金支拂의 義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企業의 收益은 상당수준으로 維持되어야 한다.

무릇 企業은——다른 經濟主體도 그렇지만——한편으로는 投資를 하는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負債를 진다. 投資를 한다는 것은 어떤 特定한 資產을 獲得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資產으로부터 얻는 現金의 흐름이 바로 企業의 總收入(total revenue)이며 總收入으로부터 投入要素에 대한 支拂(즉 勞賃, 利子 등) 및 租稅 등을 控除한 것이 利潤(profit)이 된다. 企業이 投資를 하기 위하여는 投資의 生命이 있는 期間 동안에 있어서의 總利潤의 現在價値는 물론 0 以上이 되어야 한다.

그 反面, 企業은 또한 負債를 지게 된다. 負債를 진다는 것은 將來에 있어, 보통 定期的으로 一定한 金額의 支拂을 遂行하여야 할 義務를 발생시킨다. 그 義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企業의 利潤이 충분히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借入을 하여야 한다.(그 借入으로 말미암아 負債가 加重됨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年度에 있어, 企業의 總利潤과 借入을 합친 額數는 적어도 그 企業이 當該年度에 지고 있는 現金支拂을 充當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借入을 할 수 있는 能力自體가 곧 利潤의 展望에 달려 있으므로 企業이 現金의 支拂義務를 완수하기 위하여는 보통 總利潤은 相當水準을 維持하여야 한다. 企業의 收益이 낮으면 負債로 말미암은 現金支拂의 義務를 遂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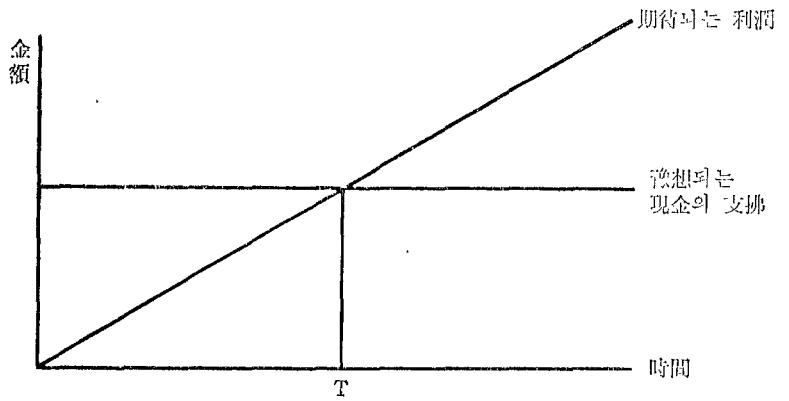
어떤 1個의 企業이 負債로 인한 元利金의 償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곧 다른 企業 또는 個人에 대한 現金의 流入을 中斷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 現金의 流入을 기대하면서 어떤 支出計劃(이를테면 投資計劃, 生產計劃 등)을 하는 企業이나 個人의 計劃에 蹉跌을 발생하게 하며 이것이 連鎖的으로 많은 다른 支出計劃에 蹉跌을 초래하게 된다. 企業이나 個人이 어떤 支出計劃을 만들 때에는 다른 곳으로부터 流入할 것이 기대되는 現金을 豫期하여 計劃이 作成되고 또 그것이 推進되지만, 實際로 그 計劃이 計劃대로 推進될 수 있는지의 與否는 豫想되는 觀念的인 現金의 流入이 아니라, 實際로 實現되는 現金의 流入如何에 달려있는 것이다. 國民經濟全體의 立場으로 볼 때에는, 그 豫想되는 觀念的인 現金의 流入과 實際로 實現되는 現金의 流入과는 恒常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 兩者間의 不一致는 곧 實物部門에서 景氣의 變動을 야기시킨다. 즉 實際의 現金의 흐름이 豫想한 現金의 흐름보다 크면 有效需要는 그만큼 增加할 것이며, 反對의 경우에는 有效需要는 그만큼 減少하여 失業을 발생시킬 것이다.

國民經濟全體의 見地로 볼 때, 上記 두개의 現金의 흐름의 不一致는 負債의 量——이것이 實際로 있어야 할 現金의 흐름의 量을 決定한다——과 經濟의 將來에 대한 展望——이것이 있을 수 있는 現金의 흐름의 量을 決定한다——에 依存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數術하기 위하여 一例를 들어보자. 모든 個人이나 企業은 저마다 資產과 負債를 가지고 있다. 資產으로부터 利潤(즉 現金의 流入)이 나오고 負債로부터 現金의 支拂義務가

발생한다. 前者가 後者보다 적은 경우에는 새로운 負債를 져야한다.

企業의 資產과 負債의 構造 및 그것으로 말미암은 現金의 流入 (즉 利潤) 및 現金支拂의 類型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어떤 企業은 投資의 初期부터, 상당 水準의 利潤이 발생하여 능히 現金支拂을 할 수 있는 展望을 가진 企業도 있겠고 어떤 企業은 投資 이후, 一定期間이 經過할 동안에는 利潤이 期待되지 못하다가 그 期間이 지난 후에야 利潤이 期待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最初의 T年 동안에는 利潤이 매우 낮아서 企業은 最初의 T年 동안에 있어서는 企業이 存續하기 위하여는 借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그 借入이 不可能하게 된다면 이 企業은 T年以後의 展望이 아무리 좋아도 倒產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 資本市場의 發達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類型의 投資를 促進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企業은 景氣가 조금만 惡化하면 곧 資金面에서 難境에 빠지게 된다. 好景氣의 山頂이 지나고 不景氣에 접어들게 되면 投資의 限界效率이 下落하면서 借入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림에서는 利潤曲線이 下方으로 移動한다.)

무릇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는 經濟의 發展이나 景氣의 變動 등에 관하여 가장 核心的인 役割을 하는 것은 利潤이다. 利潤이야말로, 資本의 蓄積의 源泉이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資金의 순조로운 循環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要素가 된다. 經濟가 잘 運行되기 위하여는 흔히 市井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돈이 잘 돌아야」 한다. 돈이 잘 돌지 않는 資本主義經濟는 순조로운 發展을 할 수가 없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은 國民經濟의 어딘가에 各經濟單位가 그 負債로부터 나오는 資金의 支拂의 約束을 履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經濟의 한 곳에서 돈이 잘 돌지 않으면 이것이 모든 다른 곳에 있어서의

資金의 흐름에 支障을 초래하게 된다. 돈이 잘 돌게 하기 위하여는 企業全體의 利潤이 상당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企業의 借入의 能力도 결국은 企業의 利潤(및 그 展望)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利潤을 결정하는 가장 큰 要因은 무엇인가? 利潤은 長期的으로는 슘페터가 말한 바와 같이 企業家의 이노베이션으로 말미암은 生産性의 向上에 의하여 發生한다. 그러나 短期的으로는 國民經濟全體에 있어 利潤은 投資에 의하여 發生한다. 칼렉키(M. Kalecki)의 理論[37]에 의하면, 勞動者가 그의 所得의 全部를 消費支出에 充當하고 企業이 利潤의 全部를 蓄積한다면,

利潤=投資

가 된다.

다시 말해서 利潤은 投資에 의하여 決定된다. 이제 政府의 存在 및 對外去來 등을 고려하며, 또 勞動者도 貯蓄을 하고 企業도 消費支出을 한다면

利潤(稅金控除)=總投資+純輸出+財政赤字+企業의 消費-勞動者의 貯蓄

이 된다.

이 模型에서 보는 바와 같이 資本主義社會에서 충분한 利潤을 確保하여 「돈이 잘 돌게」 하기 위하여선 投資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民間投資가 不充分한 경우에는 政府의 財政赤字를 늘리던가 또는 企業의 消費를 增加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곧 『一般理論』에서의 케인즈의 理論, 즉 有效需要가 不足할 경우에는 政府가 赤字財政支出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결론이 된다.

이와 같이 資本市場이 高度로 발달함으로써 負債를 지는 企業이나 個人이 많아지면 질수록 利潤의 중요성은 그만큼 加重된다고 볼 수 있다. 利潤이 조금만 줄어도 經濟主體의 많은 支出計劃에 蹉跌을 초래하게 되므로 有效需要가 줄어들어, 經濟의 不安定要素가 加重되는 것이다.

資本市場의 發達이 經濟의 不安定을 초래하는 둘째의 理由는 무엇인가? 株式市場이 發達되지 않았던 往年에 있어서는 投資가 이루어질 때에는 投資하는 個人의 立場으로 보나 社會全體의 立場으로 보나 資源의 投入이 다시 돌이킬 수 없게 확실히 이루어진다. 이에 대하여 이 資本市場이 잘 발달되어 있는 오늘에 있어서는 投資가 이루어질 때에는 비록 社會的으로 볼 때에는 資源의 投入이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하겠으나 一般投資者들의 見地로

(37) M. Kalecki, *Selected Essays on the Dynamics of the Capitalist Economy*, Cambridge, 1971, 第7章 "Determinants of Profits" (1933年論文) 參照.

볼 때에는 언제든지 그 投資를 取消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만약 一般投資家가 어떤 投資를 取消하고자 願하는 경우에는 該當株式의 價格이 下落하여 그 投資의 長期收益의 展望과는 아무런 關係 없이 同種의 事業에 대한 投資는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이 株式市場이 발달한 오늘에 있어서 投資는 株式市場에 있어서의 株式이나 會社債의 時勢에 反映되는 一般投資者들의 慣行(convention)에 의하여 影響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資本市場에 있어서 證券의 時勢를 左右하는 것은 결코 經濟의 將來나 企業의 앞날을 確固하게 내다보는 사람들의 見解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專門的인 知識도 없는 一般大衆들의 通俗的 見解인 것이다. 이 通俗的 見解는 별로 根據가 없는 것이므로 일시에 변화할 수가 있다. 여기에 現代資本主義社會의 또하나의 不安定要素가 있다.

資本市場에 있어서의 投機와 그 經濟的 效果에 대하여 케인즈는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往年에 企業이 그것을 직접 經營하는 사람이나 그들의 친구와 同僚들에 의하여 所有되었을 당시에는 豫想되는 收益에 대한 正確한 計算에 의해서가 아니라, 一種의 人生의 手段으로 企業을 시작하려는 多血的 氣質과 建設的 衝動을 지닌 人士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投資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 옛날식으로 個人企業에 대하여 投資하려는 意思決定은 社會全體에 대해서뿐 아니라, 個人에 대해서도 거의 돌이킬 수 없는 意思決定이었다. 오늘에 있어서처럼 所有와 經營이 分離됨에 따라, 또 制度的 投資市場의 발달에 따라, 매우 중요한 새로운 要素가 導入되었는데 이것은 때로는 投資를 圓滑히 하지만 또 때로는 크게 制度의 不安定性을 加重하는 要因이 된다. 證券市場이 없는 곳에는 우리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投資를 여러번 再評價하려고 할 理由가 없다. 그러나 證券去來所는 每日 많은 投資를 再評價하며 再評價는 個人이 (비록 社會全體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投資決定을 修正할 機會를 부여한다. …… 그러나 證券去來所에 있어서의 날마다의 再評價는 비록 그것이 주로 一個人과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의 지난날의 投資의 移轉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不可避하게 當該期間 동안의 投資率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投資事業을 그와 비슷한 投資事業을 買入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費用을 支拂하면서 그것을 設立할 意義는 없으며, 또 만약에 어떤 事業에 대한 新株를 證券會社에 發行하여 즉시 利潤을 낼 수 있다면, 그 새로운 投資가 매우 高價라 할지라도 그것에 支出을 할 誘因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38)

케인즈는 이와 같이 後期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의 株式市場의 役割이 한편으로는 實物

(38) 『一般理論』, pp. 150-151.

投資를 促進시키는 반면, 投資의 起伏을 加重시킬 수 있다는 것을 論하였다.

「營業을 輕易하게 하는 一切의 原因은 또 投機를 輕易하게 하는 것으로서 兩者는 흔히 密接하게 關聯되어 어디까지가 營業이고 어디까지가 投機인지를 判別하기가 어렵다」(39)라고 마르크스가 말한 바와 같이 資本主義의 發展過程에서 必然的으로 발달하는 資本市場의 制度는 한편으로는 投資를 容易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資本制經濟의 經濟不安定을 先導하는 制度的 裝置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企業의 製品과 市場만을 論하고 資本市場 및 資金調達의 메카니즘을 論하지 않는 理論은 資本主義經濟에 관한 理論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以上과 같이 케인즈의 理論은 資本市場이 高度로 發達한 後期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의 經濟變動에 관한 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이 理論에 있어서는 經濟變動을 惹起시키는 有效需要의 不足現象自體가 資本市場에 있어서의 大衆의 心理와 直結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分析이 케인즈의 理論의 含意라고 생각해도 無妨할 것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이러한 方向으로 케인즈理論을 再解釋하는 것이야말로 케인즈理論으로부터 얻는 교훈을 잘 살피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 理論에서 볼 때, 케인즈理論의 本領中의 한 側面은 貨幣金融部門과 實物部門이 資本市場에 있어서의 一般投資者들의 心理作用을 통하여 有效需要에 直接的으로 作用함으로써, 實物部門과 直接的으로 聯關되어 있는 것이다. 『一般理論』에 있어서는 「實物部門」과 「貨幣部門」이 利子率을 통하여 間接的으로 聯關되어 있다. 그러나 利子率을 통하지 않고도 兩部門은 資產의 價格을 통하여 보다 直接的으로 連結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에서 論한 것은 물론 케인즈의 理論에 대한 唯一한 옳은 해석도 아니며, 또 케인즈의 眞意를 가장 正確하게 解釋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以上의 解釋——즉 케인즈의 理論의 하나의 焦點은 資本市場을 中心으로 한 心理的 作用이 資本主義經濟의 變動의 중요한 要因이 된다는 解釋——은 오늘날의 世界各國의 經濟의 現實, 이를테면 인플레이션이나 스테그플레이션의 狀況, 그리고 이에 대한 政策의 수립에 有用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V. 케인즈의 資本主義經濟觀 및 政策觀

그는 現實問題를 떠난 理論을 일삼지 않은 政治經濟學者였다는 것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다. 동시에 그는 經濟理論이나 政策勸告 등이 英國을 떠나서 展開된 적이 없을 정도로 철저

(39) 『資本論』(高昌素之譯, 改造社, 1928), 第三卷(上), p. 365.

한 愛國主義者였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막스·베버(Max Weber)나 슘페터와 같은 世界的인 視野를 갖은 純粹한 學者라고 볼 수 없을른지도 모른다. 그의 視野에는 英國人 特有의 섬나라的(insular)인 偏狹하고 獨善的인 側面이 있다.(40) 北歐를 포함한 大陸諸國의 學者들의 理論에 대한 그의 理解는 制限된 것이었으며 그의 理論의 根底는 많은 革新的 側面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마샬의 理論이었다.

따라서 그의 資本主義에 대한 見解는 곧 그의 英國經濟에 대한 見解로부터 導出된 것이었다. 그는 슘페터가 指摘한 바와 같이 自由放任的 資本主義는 沈滯한다는 비젼(vision)을 가진 沈滯論者(stagnationist)였다.(41)

그의 沈滯論的인 見解는 第1次大戰以後의 英國經濟의 疲弊에 대한 그의 觀察을 그대로 反映하는 것으로서 그는 이것을 資本主義經濟一般에 類推한 것이다. 1919年의 『平和의 經濟的 歸結』(*Economic Consequence of the Peace*)과 1922年의 『平和條約의 改正』(*A Revision of the Treaty*)에서 그는 資本主義(즉 英國經濟)가 貯蓄의 過多로 因하여 디플레이션을 惹起시킬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려를——그리 强한 것은 아니었으나——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벌써 『一般理論』의 問題意識의 萌芽를 엿볼 수 있다.

第1次世界大戰이 끝난 이후의 英國經濟는 그당시의 美國經濟와는 달리, 그 脆弱性이 如實히 露呈되었다. 景氣와 投資는 沈滯되고 物價와 賃金은 上昇一路에 있었다. 비단 經濟뿐 아니라, 社會에도 混亂의 조짐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經濟·社會의 風向은 케인즈로 하여금 自由放任下의 資本主義는 長期沈滯의 길을 걷게 하고 있다는 확고한 견해를 가지게 하였다. 이 見解는 英國을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使命感을 刺戟하였다. 어떻게 하면 英國經濟를 資本主義體制의 테두리 속에서 救出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케인즈의 畢生의 관심사였다.

1920年代上半期부터 이 문제에 대한 케인즈의 直觀은 管理通貨制度의 採擇, 公共事業의 執行, 國內投資의 增加 및 이를 위한 海外投資의 縮少, 低利子率의 維持 등이었다. 이와 같은 政策을 理論的으로 뒷바침하기 위한 著作이 『一般理論』이며, 『一般理論』의 理論의 骨格을 얻기 위하여 約 12年의 긴 鬪爭이 所要되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英國은 원래, 몇세기에 걸쳐, 세계의 到處에 넓은 植民地를 擁有하는 帝國主義國家였으므로 植民地에 대한 投資로부터 利子를 받아 생활하는, 리카도의 時代에 있어서의 地主와

(40) J.A. Schumpeter, "Keynes, the Economist," in S.E. Harris, *The New Economics: Keynes' Influence on Theory and Public Policy*, London: Dennis Dobson Ltd., 1947, p. 87.
(41) 前揭論文, p. 80.

도 같은 不勞所得을 누리는 金利生活者의 階級이 形成되어 있었다. 第1次大戰前까지만 해도 이들 海外投資家에 의하여 海外에 대한 投資가 이루어지면, 그 投資는 곧 英國產工產品에 대한 注文으로 變하여, 거의 아무런 漏出없이 英國에 대한 有效需要의 創出로 변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英國의 海外投資者들의 海外投資——주로 英國의 植民地에 대한 投資——는 비단 그 植民地의 開發을 促進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英國經濟의 發展에 큰 寄與를 하였다.(42)

그러나 第1次大戰 이후로는 英國은 세계의 工場으로서의 獨步的인 地位를 상실하게 되어 英國의 海外投資의 結果는 新興工業國家 이를테면 美國의 工產品에 대한 需要를 증가시키는 反面 海外로 나간 파운드가 英國으로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 차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는 海外投資로 인하여 國內投資는 그만큼 적어지며, 그 결과 英國經濟는 계속 디플레이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케인즈는 생각하였다. 이 케인즈의 分析은 1924年 5月에 發表된 다음과 같은 케인즈의 新聞論說에 가장 鮮明하게 敍述되어 있다.

「나의 意見에 의하면 現在 英國의 海外投資率은 過多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만한 理由가 많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쉽게 割愛할 수 없는 資源을 지나친 廉價로 貸與하고 있는 것이다. 海外投資에 대한 우리의 傳統的, 通俗的 姿勢는 再考를 요한다. 海外投資에 대하여는 나쁜 烙印을 찍어서 그것을 資本의 逃避를 불러야 할 때가 成熟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海外投資가 失業이라는 特殊한 問題와 有關한 하나의 側面에 限해서 論議하고자 한다.

「海外投資에는 그것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國產品에 대한 注文으로 直接的으로 連結되는 것도 있다. 一般的인 觀點에서 이들이 과연 바람직하든 못하든 간에, 그런 投資는 雇傭에 대하여는 有害하지는 않다. 그러나 原則的으로 이것은 例外에 속한다. 海外에 대한 貸與가 自動的으로 同額의 輸出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은 賠償의 要求가 그렇지 않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一例를 들어보자. 지난 週에 뉴·사우드·웨일즈社는 런던市場에서, 鐵道, 電車, 港灣, 河川 및 橋梁, 水道, 灌漑, 下水道의 建設 및 其他의 目的으로 550萬파운드를 借入한 바 있다. 이 金額의 一部는 이들 事業에 所要되는 物品을 本國에 注文할 때에 쓰일 것이다. 보다 더 큰 몫은 그런 目的으로 쓰이지는 않고, 現場에 있어서의 勞動에 대한 支拂로,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의 物品의 購買에 쓰일 것이다.

(42) 英國을 中心으로 한 第1次大戰前까지의 國際貿易의 패턴에 대하여는 R. Nurkse의 몇개의 論說이 가장 鮮明하고 說得力이 있다. 例를 들어, 그의 *Equilibrium an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Harvard, 1962, 第7, 8, 10章 等 參照.

다시 말해서 그 資源은 濠洲로 迂廻的 方法으로 移轉될 것이다. 조만간 이 結果는 英國의 輸出의 增加 또는 輸入의 減少에 의하여 調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파운드貨의 平價下落(depreciation)의 媒介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파운드貨의 價値의 下落이 있어야 保護되고 있는 非輸出產業이 아니라 輸出產業을 刺戟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兩者間의 均衡을 回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輸出에 대한 世界의 需要가 現在 非彈力的이라고 한다면 그 均衡을 回復하기 위하여는 相當한 程度의 파운드貨의 平價下落이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調整의 過程에도 심한 抵抗이 있을른지도 모른다. 換率의 下落은 生計費를 上昇시킬 것이며 〈保護받고 있는〉 產業들은 이것이 몰고 오는 實質賃金의 下落을 避하기 위하여 투쟁을 展開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經濟構造는 결코 彈力的이 못되며 마련된 緊張과 破損으로 많은 時間이 흐르고 間接的인 損失을 입을 것이다. 이러는 동안, 資源은 일없이 놀고 勞動은 일을 않고 있을 것이다.」(43)

이와 같이 케인즈는 이 老大國英國을 經濟沈滯로부터 救出하기 위하여는 海外投資에 制動을 걸어서 그것을 國內投資로 轉換하여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1934年에 케인즈가 金本位制度에 復歸하는 것을 極力 反對한 理由도 金本位制度가 圓滑히 할 수 있다고 믿어졌던 海外投資가 英國經濟에 디플레이션效果를 가지고 오고 英國의 國內產業에 打擊을 입힐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케인즈의 分析에 의하면 그는 金本位制度로의 復歸는 결코 英國經濟全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海外投資로부터 얻는 利子의 受入에 寄生하는 投資者階級이라는 不勞所得階級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英國經濟의 沈滯는 1930年代에 접어들 무렵부터 漸次 뚜렷해졌다. 케인즈는 投資機會의 縮少로 인해 惹起되는 沈滯可能性에 대하여 1930年의『貨幣論』에서 다음과 같이 論하였다.

「英國은 世界의 大部分의 다른 나라에 있어서보다 勞動階級의 生活水準이 높은 老大國이다. 人口는 멀지 않아 增加를 멎을 것이다. 우리의 慣習이나 制度는 모든 反對의 主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所得의 10%를 貯蓄하는 節約하는 國民으로 머물게 할 것이다. 이러한 條件下에서는 만약 英國經濟가 封鎖經濟라면 自然利子率이 急激히 下落하리라고 自信있게 豫想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餘他의 世界에서 (美國은 豫想보다는 훨씬 빨리 英國과 똑 같은 處地에 놓일 것이지만) 利子率의 下落은 훨씬 緩慢할 것이다. 그러므

(43) Harrod, 前揭書, p. 408.

로 自由放任下에 있어서의 均衡은 우리의 貯蓄의 큰, 그리고 앞으로 더욱 커지는 比率이 海外貯蓄으로 그 出口를 찾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44)

여기에도 1924年에 있어서와 똑같은 問題意識이 鮮明히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도 政策의 處方의 方向은 海外投資를 國內貯蓄으로 轉換하는 것이 옳다는 結論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케인즈는 1920年代를 통하여 줄곧, 그리고 1930年의『貨幣論』에 있어서도 國內의 貯蓄에 總投資를 맞먹게 하기 위하여는 投資를 海外投資로부터 國內投資로 轉換하여야 한다고 主張한 것이다. 케인즈는 英國經濟를 沈滯로부터 救出하기 위해서는 國內의 投資를 增加시켜야 한다는 政策의 方向感覺을 확실히 잡았으며, 理論的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唯一의 方法은 海外投資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投資를 海外로부터 國內로 轉換하는 것보다 國內投資自體를 늘리는 것이 失業救濟의 方法이라는 것을 理論的으로 提示하지 못한 理由는 그당시까지만 해도 케인즈의 利子理論이 古典學派의 $S \equiv I$의 理論으로부터 脫皮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같다. 1920年代와 30年代의 初半을 통하여 케인즈가 편 主張을 綜合해 보건대, 그는 아직도 이른바 財務省의 見解(Treasury View)를 脫皮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貯蓄(즉 投資)의 總量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45) 그의 생각에는 國民經濟에는 一定額의 貯蓄이 있어, 그것이 國內投資와 海外投資에 나누어져서 投資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즉 그 당시까지만 해도 政府가 國內投資를 하였을 경우, 그것이 所得을 增大시켜서 그 投資의 資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즉 投資와 맞먹는 정도의) 貯蓄을 創出해 낼 수 있다는 乘數效果가 着眼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自由放任下의 資本主義經濟가 沈滯한다는 케인즈의 認識은 해를 거듭할수록 强化되어『一般理論』에서 그 問題意識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12年間에 걸친 鬪爭의 結果로, 그는 英國의 投資를 海外投資로부터 國內投資로 轉換시켜야 한다는 政策處方으로부터,『一般理論』에 있어서는 海外投資와는 관계없이 國內投資를 增加시키기 위하여, 投資를 社會化(socialization of investment)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새로운 處方이 提示된 것이다.(46) 이것은 무엇보다도『一般理論』에서 제시된 模型이 거의 완전히 封鎖經濟의 模型이라는 點에서 雄辯

(44)『貨幣論』, 第二卷, p. 188.
(45) Harrod, 前揭書, p. 413.
(46) 물론 海外投資를 國內投資로 轉換하는 것은『一般理論』의 理論的 骨格으로서도 환영하지 않을 理由는 없다. 그러나,『一般理論』에서의 케인즈의 理論은 往年의 財務省의 見解로부터 乘數理論으로 새로운 展開를 보였다는 點에서 위의 投資轉換論이『一般理論』의 理論의 基調라고는 생각될 수가 없다.

으로 立證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英國經濟는 傳統的으로 海外經營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고 經濟理論 역시 古典學派 이래로 國際的 側面과 關聯이 지워지면서 形成되었고 케인즈의 論說 역시 1920年代에 있어서는 대부분 모두 國際經濟와 聯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一般理論』에 있어서는 重商主義의 基本觀點을 支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완전히 封鎖經濟를 前提로 理論이 展開되고 있다는 것은 乘數效果를 바탕으로 한 有效需要의 槪念이 처음으로 『一般理論』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47)

케인즈는 英國經濟의 순조로운 發展과 雇傭의 增大에 있어 癌的 存在가 되는 것은 利子所得者와 같은 不勞所得者라고 믿었었다. 이들의 낮은 消費性向 때문에 貯蓄이 過多하게 되고, 이들의 높은 流動性選好 때문에 利子率이 낮아지지 않고, 利子率이 낮아지기 않기 때문에 投資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利子率의 下方硬直性이 有效需要를 낮게 하는 主要原因인 것으로 케인즈는 생각하여 『一般理論』에서 많은 紙面이 割愛되었던 것이다.(48)

우리는 이미 이 論文의 第III節에서 케인즈의 有效需要理論은 利子率을 통하지 않고서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論하였다. 설사, 利子率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케인즈의 利子率에 대한 强調는 지나친 것이었다는 데 대하여는 별로 異議가 없는 것같다. 그의 流動性理論에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誤謬가 많다.

케인즈가 利子率을 중요시하고 一生을 통하여 거의 一貫하여 低利子率의 維持必要性을 力說한 것은 高利子率이 有效需要를 낮게 한다는 理由 이외에도 高利子率이 無爲徒食하는 有閑階級을 돕는다는 데 대한 그의 嫌惡가 다분히 깃들어 있는 것같다. 위에서도 指摘된 바와 같이 老大國인 英國에는 海外投資者들과 같은 利子收入에 의존하는 有閑階級이 形成되어 있었는데 케인즈는 이것을 하나의 資本主義의 可憎할 側面(obnoxious feature of capitalism)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低利子率의 維持가 이 有閑階級에 政治的 打擊을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끝내 保守黨에 반대하고 自由黨을 支持한 그의 政治的 見解와 잘 符合되는 것이다.

資本主義經濟가 窮極的으로는 沈滯의 길을 밟는다는 그의 觀察이 妥當한 理由를 說得力

(47) 존슨(H.G. Johnson) 교수는 英國의 그 당시의 經濟沈滯가 오직 파운드貨의 高平價에 그 根源을 두고 있었으며, 換率만 잘 調整되었더라면 失業問題는 자연히 해결되었을 것이므로 『一般理論』은 쓰여질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論한 바 있다. 존슨의 觀察의 妥當與否는 고사하고 『一般理論』에서는 다만 國際貿易이 있는 경우에는 國內의 勞賃이 下落하면 輸出의 增大가 있어 그것이 有效需要의 增大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의 論議를 뺀다면, 海外投資, 國際貿易 등에 대하여는 거의 아무런 論議도 없다.

(48) 이것은 『一般理論』에서뿐만 아니라 1920年代를 통하여 줄곧 表明된 케인즈의 見解였다.

있게 說明하는 데 있어 케인즈는 成功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첫째, 自由放任的 資本主義經濟에 있어 消費性向의 減少, 投資의 限界效率의 減少 및 流動性選好의 强化 등으로 因하여 有效需要는 점차 감소하고 經濟가 沈滯한다고 보았는데 이 모든 것은 英國經濟를 곧 後期資本主義經濟의 典型으로 보는 데서 오는 지나친 悲觀의 産物이라 하겠다.

우선 消費性向에 대해서 考察하면, 그는 이른바 絶對所得假說을 세우고 있는 바 後世에 와서 發見되고 있는 것처럼 그는 相對所得假說이나 恒常所得理論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長期的 消費性向에 관하여 잘 認識을 하지 못하였다.

投資의 限界效率이 낮아지는 傾向에 대하여 그는 明白히 誇張하고 있다. 그는 資本이 蓄積됨에 따라 投資의 限界效率이 急激히 낮아지리라고 생각하였다. 심지어 그는 지금(1936年 당시) 처럼 資本이 蓄積되고 있다면 不過 1世代以內에 投資의 限界效率은 0이 될 것이라고 主張한 것은 참으로 지나친 短見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見解는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投資의 基本性格——즉 슘페터의 이른바 「創造的 破壞」의 過程에서 이루어지는 投資의 活力——에 대하여 정당한 認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技術水準의 向上에 대하여 올바른 評價를 하지 못한 것은 거의 古典學派의 이론과 같다. 投資의 原動力이 되는 技術의 不斷한 진보에 대한 眼識 및 資本主義經濟의 發展에 대한 슘페터的인 理解가 缺如되고 있는 마당에서 오직 당시의 英國經濟에 있어서의 投資意慾의 減少傾向에만 執着하고 있다 보니, 投資의 長期的 趨勢에 대하여 沈滯論的인 悲觀論을 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投資를 결정하는 「長期的 期待」에 대한 說明이 說得力있게 될 수가 없음은 自明한 일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長期的 期待를 決定하는 要因은 잘 모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投資는 投資者들의 野性的 衝動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資本主義의 發達에 따라 投資가 不斷히 減少하여 不斷히 增加하는 貯蓄에 未達하게 됨으로써 資本主義經濟는 沈滯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投資가 왜 감소하지 않으면 안되는가에 대한 說明은 별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一般理論』에서 그는 觀察하기를,

「19世紀에 있어서는 人口와 發見의 增加, 新天地의 開拓, 信賴의 程度, 그리고 平均 10年에 한번쯤 있는 戰爭의 頻度 등은, 消費性向과 서로 관련하여, 대체로 滿足할 수 있는 平均雇傭率이 富의 所有者에게 충분히 心理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로 높은 利子率과 兩立할 수 있게 하여 주는 資本의 限界效用曲線을 設定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49)

라고 하여, 19世紀에 있어서는 資本의 限界效率이 비교적 높아서 利子率이 상당히 高水準

(49) 『一般理論』, p. 307.

에 있었지만 雇傭을 높게 確保할 수 있다는 理由를 말하였다. 그러나 20世紀에 와서는 資本의 限界效率이 19世紀에 비하여 훨씬 더 低下되었다는 것을 指摘할 뿐, 그 理由에 대하여는 아무런 納得할 만한 說明이 없는 것이다.(50) 그는 오직 利子率의 下方硬直性을 誇張해 주장할 따름이며, 資本의 限界效率의 下落의 理由에 대하여는 거의 說明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케인즈는 資本主義經濟(즉 英國經濟)에 있어서의 沈滯要因의 하나는 利子率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 利子率이 지나치게 높다는 觀察은 『一般理論』 이전에 있어서도 여러번 披瀝된 것인데 『一般理論』에 있어서는 그 理由를 投資者階級의 强한 流動性選好에서 찾고 있다.

케인즈의 『一般理論』의 理論體系 가운데서 가장 큰 弱點은 그의 利子理論에 있다고 생각된다. 케인즈는 아마도 그의 理論 가운데에 가장 革命的인 部分이 그의 利子理論에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같다. 그러므로 이 利子論에 『一般理論』의 가장 큰 弱點이 있다는 것이 케인즈의 「革命」의 脆弱性을 나타내는 것이고 「反革命」을 催促한 가장 큰 要因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케인즈의 利子論에서의 弱點에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하나는 短期的 流動性選好說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長期的 流動性選好說에 관한 것이다. 前者는 理論的으로 크게 不完全하고 後者는 理論的으로나 現實的으로나 거의 완전히 틀리는 것같다.

前者 즉 短期的 流動性選好理論에 의하면 利子率은 순전히 貨幣에 대한 需要와 通貨量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인데 특히 不滿足스러운 것은 「自然利子率」(natural rate of interest)의 槪念의 理論的 妥當性을 一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케인즈의 理論에 의하면 會社債에 대하여 利子의 支拂이 要求되는 理由는 流動性의 犧牲에 대하여 補償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바 그 流動性의 犧牲이란 결국 사람들이 그 會社債를 賣却하여 現金을 入手하고자 하는 경우 會社債의 價格이 下落(즉 利子率이 上昇)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危險이라는 것이다. 이 理論의 問題點은 만일 사람들이 會社債를 賣却할 때 資本損失, 즉 利子率의 上昇을 豫想하지 않는다면, 利子率의 存在를 說明할 아무런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 理論은 로버트슨(D.H. Robertson)이 指摘한 바와 같이 마치 保險料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危險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떤 保險會社가 被保險者에게 保險料를 물리고자 하는 것과 같은 虛空에 뜬

(50) 이에 관하여는 P.M. Sweezy, "The First Quarter Century", in Robert Lekachman, *Keynes' General Theory: Reports of Three Decades*, St. Martin's Press, 1964, pp. 305-314 參照.

理論이 되는 것이다.(51) 이 理論은 利子率의 變動에 관한 說明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利子率의 本質에 관한 理論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케인즈는 『一般理論』에서 빅셀(Wicksell)의 自然利子率(즉 $S=I$를 成立시켜주는 利子率)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가 있다는 理由로 ——왜냐하면 國民所得의 變化에 따라 $S=I$를 滿足시켜주는 利子率에는 여러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不必要한 槪念으로 생각하고, 完全雇傭이 成立할 때의 利子率을 中立利子率(neutral rate of interest)이라 命名하였지만 이에 대하여도 별로 重要性을 賦與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中立利子率 (빅셀의 自然利子率)은 해로드가 指摘한 바와 같이 매우 重要한 槪念이다. 왜냐하면 만약 市場利子率이 이 中立利子率보다 낮다면 總需要는 總供給能力을 凌駕할 것이므로 인플레이션壓力이 作用할 것이며, 그 反面 市場利子率이 中立利子率보다 높다면 失業事態가 惹起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케인즈가 無視하고자 하는 이 中立利子率이란 매우 重要한 槪念이다. 이 重要한 中立利子率은 무엇에 의하여 決定되는가? 이것은 곧 投資性向과 貯蓄性向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古典理論에서 自然利子率을 決定하는 것과 똑같은 힘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다.(52)

케인즈의 利子率理論은 이와 같이 貯蓄性向, 投資性向이라는 實物的 힘의 役割을 排除한데 根本的인 문제가 있다. 이는 逆으로 말하면, 利子率을 決定하는 데 있어서의 貨幣的 要因 특히 그의 流動性選好가 利子率을 決定하는 데 있어 遂行하는 役割을 지나치게 强調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너(J. Viner)는 그 利子率의 결정에 있어 케인즈가 流動性選好의 役割을 誇張하고 있다고 主張하는 理由로서, 첫째 많은 사람들이 會社債를 買入하여 保有하는 동기는 投機에 있는 것이 아니라 會社債가 滿期에 이르기까지 定期的으로 支拂되는 利子를 얻기 위한 경우가 많다는 것, 둘째 利子率이 上昇할 것으로 사람들이 豫想할 때에는 景氣도 好轉될 것이라는 期待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會社債의 價格의 下落을 期待하여 그 買入을 延期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會社債의 價格의 上昇을 期待하여 그 買入을 鼓舞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 세째 投資者는 경우에 따라서는 流動性選好를 滿足시키는 동시에 또한 投資意慾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끝으로 投機的 動機에 의하여 保有하는 貨幣의 量은 非投機的 動機에 의하여 保有되는 貨幣의 量보다는 훨씬 적다는 것을 들었다.(53)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케인즈의 流動性選好說은 利子論으로서 許多한 缺陷을 가지고 있으나 특히 本節에서 論하고 있는 問題, 즉 資本主義經濟의 沈滯라는 長期的 展望에 관한 問

(51) R.F. Harrod, *Money*, Macmillan, 1969, p. 175.
(52) Harrod, 前揭書, p. 177.
(53) J. Viner, "Mr. Keynes on the Causes of Unemploy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51 (Nov. 1936), pp. 147-167 및 Harrod, 前揭書, p. 172.

題를 考察할 때 그의 長期的 流動性選好理論은 더욱 큰 缺點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一般理論』에서 어떤 時代에 있어서든지 어떤 經濟를 莫論하고 長期的으로 流動性選好는 强化되는 것이 一般的인 現象이라고 論하였다.(54)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短期的 流動性選好理論과 여기에서 考察하고자 하는 長期的 流動性選好理論은 서로 잘 맞지 않는다.(55)

短期的 流動性選好理論에 의하면 利子率은 通貨量과 利子率의 變化에 대한 展望이 결정하는 流動性選好를 中心으로 하는 貨幣에 대한 需要에 의하여 決定된다. 그러나 그의 長期的 流動性選好論에 의하면 長期的으로는 貨幣가 가지는 特性 (즉 流動性프레미엄의 存在)으로 因하여 모든 貨幣經濟에는 流動性選好가 不可避的으로 强化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資金을 他人에게 貸與할 誘因은 점차 弱化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利子率은 점차 上昇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經濟가 發達함에 따라 資本이 蓄積되고 資本이 蓄積됨에 따라, 投資의 限界效率은 점차 낮아진다. 資本의 限界效率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流動性選好가 점차 강화됨으로써 利子率은 一定水準 이하로 下落하지 않기 때문에 完全雇傭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長期的인 流動性選好가 一方的으로 오직 强化의 一路를 걷는다는 케인즈의 비젼은 理論的으로나 實際로 도저히 妥當한 것이 못된다.

短期的으로 볼 때에는 利子率의 上昇이 豫想되는 경우는 流動性選好로 因하여 利子率이 一定以下로 下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長期的으로 볼 때에는 富의 所有者들이 貸與를 꺼릴 理由는 없을 것이다. 로빈슨女史가 말한 바와 같이 現金을 保有함으로써 얻는 이른바 流動性프레미엄을 가지고는 市場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56) 富의 所有者는 貸與를 하지 않고는 利子收入者로서 生存할 수가 없는 것이다. 利潤率이 점차 낮아진다면 投資企業이 支拂할 수 있는 利子도 따라서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利子率도 물론 下落할 것이다. 富의 所持者의 立場으로 본다면 낮은 利子收入도 無收入보다는 나을 것이므로 貸與로 因한 利子가 債務不履行으로 말미암은 損失을 充當할 수 없을 程度로 낮아질 때까지 貸與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貸與가 中止된다면 그것은 케인즈가 말한 바와 같이 貸與의

(54) 『一般理論』, 第17章.

(55) 케인즈의 理論은 일반적으로 短期的 理論이다. 그러나 그의 『一般理論』은 資本主義經濟의 長期的 沈滯의 不可避性에 대한 그의 비젼으로 일관되고 있다. 케인즈의 短期理論에 의하면 資本主義經濟는 얼마든지 長期的인 繁榮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것은 그의 長期的 비젼과 兩立되지 않는다.

(56) 이에 대한 論議는 J. Robinson, *Collected Economic Papers*, Vol. 3, Basil Blackwell, 1965, pp. 132-138.

意思가 없어짐으로써——즉 流動性選好로 因해서——가 아니라, 健全한 借入者가 없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長期的 流動性選好가 强化될 理由는 理論的으로 成立할 수가 없다. 따라서 長期的으로 볼 때, 資本主義經濟의 沈滯要因을 利子率의 長期的 下方硬直性에서 찾으려는 케인즈의 비젼은 根據가 薄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상에서 自由放任的 資本主義經濟는 長期的으로 沈滯하리라는 케인즈의 비젼은 여러가지 面에서 理論的으로 그 根據가 薄弱하다는 것을 보았다. 이는 어디까지나 1920年代 및 30年代에 있어서의 英國의 沈滯狀이 케인즈의 觀察에는 半永久的이고 普遍的인 資本主義經濟一般의 現象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케인즈 이후의 資本主義의 發達의 자취를 보아도 비록 自由放任的 經濟는 자취를 감추기는 했으나 經濟가 長期的으로 沈滯하리라는 沈滯論의 비젼은 옳지 않은 面이 많았다고 보아야 할 것같다. 다만 自由放任的 資本主義는 비록 長期的인 沈滯는 아니라 할지라도 相當한 不安定的인 要素——특히 資本市場을 圍繞하여——를 지니고 있다는 케인즈의 비젼은 正鵠를 얻은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1970年代初부터 世界經濟를 掩襲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하여 케인즈의 理論은——그것이 케인즈의 經濟學이든 케인즈派의 經濟學이든——有效한 對策을 마련해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삼 經濟政策에 대한 케인즈의 基本觀點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考察할 필요가 있다.

經濟政策의 目的과 效用에 대한 케인즈의 基本觀點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英國의 經濟政策은 케인즈 자신과 같은 高度의 知性을 갖춘 少數의 엘리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그 엘리트들은 經濟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둘째, 國民經濟의 有效需要는 財政金融政策의 섬세한 調整을 통하여 잘 調節될 수 있으므로 失業이나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나 回避할 수가 있다.

케인즈의 生涯와 活動, 그의 學說과 政策勸告를 綜合하여 보건대, 이상의 두가지가 經濟政策(즉 케인즈의 當時의 英國政策)에 대한 基本的 態度라고 볼 수가 있다. 이 基本的 態度는 英國뿐 아니라, 世界各國(우리나라를 포함시키지 않을 理由는 없다)의 經濟政策의 方向 및 그 成功과 失敗——後者가 前者보다 더 많을 것같다——에 多大한 影響을 미친 바 있다.

케인즈는 英國의 政治는 健全하여야 하며, 英國의 經濟는 滿足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發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기 위하여는 英國의 政治 및 經濟의 方向은 自己와 같은 知性主義的 貴族哲學者들에 의하여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케임브리지大學의 교수인 父親과 케임브리지市長이었던 母親의 家庭, 그리고 이튼學校와 케임브리지의 敎育, 블룸스베리의 交友들의 影響力이 빅토리아時代的인 健全한, 그리고 多分히 獨善的인 엘리트意識을 그에게 扶植한 것이다.(57) 엘리트들은 말할 나위도 없이 國民大衆의 利益을 위하여 私心 없는 政策構想을 하고 그것을 實踐에 옮겨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케인즈는 自己가 이 「하비路의 價値觀」을 實踐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知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 마지 않았다. 그는 사실 모든 形態의 社會惡에 대하여 適切한 對策이 세워질 수 있다고 믿었고 細心한 注意와 勞力으로 貧困이나 失業 등이 驅逐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計劃, 그리고 制度的 裝置를 重要視하고 당시의 英國保守黨의 自由放任的 態度를 憎惡하였으며, 經濟問題나 社會問題에 대하여 可及的 解決策을 講究한다는 것을 標榜하는 自由黨을 支持하였다. 한마디로 그는 그의 知性, 그리고 經濟分析에 대한 正當性에 대하여 十二分의 自信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이 知識이나 知性이 實踐에 옮겨질 수 있는가? 그는 說得에 의하여 그것이 可能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그의 說得力을 가지고는 누구든지 說服할 수 있다고 믿었다.(58) 케인즈는 『說得論文集』(*Essays in Persuasion*)이라는 册을 出刊하였으나 廣義로 보자면 『一般理論』도 하나의 說得論文이었다고 볼 수 있다.

英國의 政治와 經濟의 方向이 그와 같은 貴族的 知識人에 의하여 장악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健全한 一面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民主主義社會라 할지라도 傳統意識이나 엘리트意識 없는 大衆社會가 되어서는 社會의 規範이 없어지고 安定이 威脅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問題가 되는 것은 自由放任의 資本主義가 케인즈의 所願대로 바야흐로 終焉을 告하고 政府의 役割이 劃期的으로 增大하여야 할 轉換期를 앞둔 歷史的인 時期에 當하여 케인즈가 가지고 있던 價値觀은 분명히 새 時代의 潮流에 잘 符合될 도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케인즈가 그리고 있는 社會構造와 政治行態 그리고 經濟構造는 英國에서 또 世界各處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데에 問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와 같은 知性主義者들의 影響力은 急激히 退潮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데에 케인즈의 理想과 現實 사이의 乖離가 발견되는 것이다. 해마다 政府의 活動領域이 擴大되는 過程에서 少數의 엘리트로서는 도저히

(57) 이 價値觀은 케인즈의 出生地인 케임브리지의 하비路 6番地에 따라, 「하비路의 前提」(Presupposition of Harvy Road)로 命名되었다. Harrod, *Life of J.M. Keynes*, p. 214, 216 參照.

(58) 그의 說得力에 대한 過信, 그리고 또 그의 性格的 長短點에 관하여는, F.A. Hayek, "Harrod's *Life of Keyes*," in F.A. Hayek,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Routledge & Kegan Paul, 1967 參照.

감당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 點에 관해서는 해로드도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만약, 計劃의 必要性 때문에 政府의 機能이 크게 擴大되고 多樣해진다면 知性을 가진 貴族이 必要한 統制役割을 維持할 수 있을 것인가?……여러가지 多樣한 任務를 가진 民主政府는 統制에서 벗어나게 되어 少數의 知性人들이 贊成할 수 없는 方向으로 行動하지나 않을까? 즉 計劃의 機能과 가장 思慮깊은 判斷이 最終的으로는 優位에 있어야 한다는 條件에 의하여 民主政治가 制約받아야 한다는 原則이 어떻게 調和되어야 하는가가 또 하나의 딜렘마이다.」(59)

뿐만 아니라 케인즈는 분명히 知性主義者의 能力을 過信하고 있었던 것같다. 人間의 能力, 人間이 到達할 수 있는 知識의 限界 등에 대한 그의 認識은 완전히 충분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知識의 役割과 그 限界와 社會 및 歷史에 대한 識見이 圓熟한 것이 될 수 있는 可能性은 强烈한 그의 使命感과 多樣한 그의 社會活動에도 불구하고, 多方面에 걸친 天才가 그에게 안겨준 成功에 의하여 沮害되었던 것이다.

케인즈는 분명히 自身의 能力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經濟理論의 妥當性에 지나친 自信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長期的으로는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人口에 膾炙하는 말로 長期的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短期的인 문제에만 置重하는 것이 老成한 學者가 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長期性을 띄지 않는 短期的인 문제란 과연 있는 것일까? 長期的으로는 모두가 죽는다는 말은 그의 政策觀의 基本的인 貧困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는 短期的인 문제——이를테면 失業問題——에 관하여 財政金融의 纖細한 調整을 통하여, 마치 齒科醫師가 齒牙에 대하여 處方을 내리듯, 항상 適用한 處方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는 傳統的인 均衡財政의 原則의 理論的 妥當性을 거부하고 財政金融政策의 纖細한 調整에 의하여 인플레이션이나 失業은 언제나 回避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는 政府의 役割이 항상 좋은 結果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過信하고 있었다.

纖細한 調整에 대한 그의 믿음, 政府의 役割의 有用性에 대한 그의 믿음이 過信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난 15年 동안의 各國의 經驗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財政金融政策의 纖細한 調整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粗雜한 政策道具에 不過하였다. 케인즈의 理論에 立脚한 纖細한 調整은 항상 親인플레이션的으로 政策을 執行하도록 만들었고, 이것이 1970年 以後의 國際인플레이션의 遠因이 되었다. 그의 理論에 立脚한 所得政策은 各國에서 거의

(59) Harrod, *The Life of John Maynard Keynes*, pp. 225-226.

例外없이 失敗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의 理論의 影響力이 가장 강한 英國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病弊가 세계 어느나라에 있어서보다도 激甚하다는 사실은 그의 理論과 政策觀의 瑕疵를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60)

VI. 結　語

케인즈의 經濟理論은 旣存의 理論과는 달리, 現實世界에 대한 觀察을 토대로, 現實問題에 대한 해결을 指向하는 政治經濟學이라 할 수 있다. 케인즈의 政治經濟學이란 결코 어떤 理念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에 立脚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科學的 分析方法을 離脫하지 않으면서 現實問題를 素材로 삼고 있는 것이다.

케인즈理論은 旣存理論과 같이 人間의 行動에 대한 假定 위에서 演繹的으로 전개되는 抽象的 論理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現實社會를 素材로 하고 있다. 그 理論은 모든 社會制度에 공통되는 普遍妥當한 理論이 아니라 金融資本市場이 高度로 發達되어 있는 現代資本主義經濟의 制度的 背景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 理論은 現實經濟에 관한 理論이므로 時間에 대한 고려가 없는 均衡分析을 위주로 하는 靜態分析이 될 수 없고 本質的으로 動態分析의 性格을 띠고 있다. 케인즈의 動態分析은 將來에 대한 不確實性이 經濟主體의 心理作用을 통하여 現在의 意思決定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分析을 그 骨子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將來와 現在를 連絡시켜 주는 것은 貨幣 (및 貨幣的 資產)이므로 케인즈의 有效需要理論은 貨幣를 떠나서는 전혀 고려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케인즈의 巨視理論은 곧 貨幣理論이다. 케인즈經濟學의 이러한 特徵——本質的으로 政治經濟學이며 이 理論은 現代資本主義라는 特定한 制度 위에 서 있고, 未來에 있어서의 不確實性을 둘러싼 經濟主體의 心理作用을 重要視하며 그 心理作用이 現在의 有需需要를 결정한다는 데에 分析의 焦點을 두고 있는 貨幣理論이라는 點 등——은 旣存理論과는 현저하게 다른 點이라 하겠다. 이 모든 制度的 心理的 要素를 捨象한 후에 남는 形骸를 가지고 케인즈經濟學에는 새로운 것이 없고 普遍妥當한 旣存理論의 특수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主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케인즈經濟學은 이와 같이 經濟理論으로 하여금 空論을 떠나 現實世界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많은 理論的 貢獻을 하였으나, 그 理論의 全體를 구성하는 個個의 命題에는 많은 論理的 誤謬, 現實과의 乖離가 있어 이것이 케인즈의 革命을 不完全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60) 케인즈理論에 立脚한 經濟政策이 英國經濟에 미친 惡影響에 대하여는 J.M. Buchanan, John Barton, and R.E. Wagner, *The Cousequences of Mr. Keynes*, London: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78 參照.

흔히 케인즈의 理論은 失業에 관한 理論 또는 恐慌에 관한 理論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다. 케인즈理論은 將來에 있어서의 不確實性에 대한 心理的 作用이 金融資本市場을 통하여 經濟變動을 惹起시키는 데 대한 理論으로 디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물론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잘 適用될 수 있는 內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케인즈의 비젼은 金融資本市場 등이 發達되어 있는 現代資本主義經濟의 運行은 결국 旣存理論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圓滑하지 않으며, 變動의 屈曲이 많고 不均衡狀態가 長期化할 수가 있다는 데에 그 要點이 있다 하겠다. 不均衡狀態는 失業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인플레이션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케인즈의 理論은 短期理論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資本主義의 將來에 대하여 그는 1920年初부터 一貫하여 沈滯論的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政策方向에 관한 비젼은 『一般理論』의 훨씬 이전에 이미 확고하게 세워져 있었으며, 그 政策的 비젼의 理論的 妥當性을 구하고자 한 것이 『一般理論』이었다. 케인즈의 沈滯論은 資本主義經濟의 發展의 本質에 대한 理解의 未洽, 投資의 決定要因에 대한 分析의 不足, 技術의 進步에 대한 認識의 缺如 등을 반영하고 있을뿐 아니라 순수한 經濟理論의 次元에 있어서도 長期的으로 流動性選好는 强化一路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그의 分析은 妥當性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같다. 그의 沈滯論은 1920年代 및 1930年代의 英國經濟의 沈滯相을 그대로 다른 資本主義經濟에까지 類推함으로써 얻어진 것인데, 이러한 暗默的인 前提에도 妥當性은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케인즈는 (英國의) 經濟政策이 少數의 엘리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政府는 財政金融政策의 섬세한 調整을 통하여 景氣變動을 얼마든지 調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自身과 같은 엘리트들이 英國의 經濟를 破滅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使命感을 가진 것은 十分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그가 自身을 포함한 少數의 엘리트의 能力에 대한 지나친 自信을 가지고 있었음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政府의 經濟調整能力에 대하여 過信하고 있었고 19世紀로부터 오랜 세월을 통하여 經驗的으로 確立된 財政에 대한 不文律的 原則——이를테면 均衡財政의 原則——에는 단순한 論理를 떠난 智慧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世界各國에 있어서의 케인즈流의 섬세한 調整의 結果는 결국 國際的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케인즈의 비젼과 理論이 가장 直接的으로 많이 적용된 英國에 있어서의 經濟政策은 거의 失敗의 連續이었다는 것을 보아도 政府의 能力에 대한 過信이 얼마나 큰 災害를 빚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나라——英國을 포함해서——의 經濟政策上의 失敗를 케인즈에게 責任지울 수는 없다. 이 글에서도 여러번 言及한 바와 같이 케인즈理論은 흔히 그의 이름으로 提示되는 여러가지 模型이 나타내는 것보다는 훨씬 깊은 含蓄을 가지고 있다. 經濟學徒는 누구나 막론하고 그의 理論을 理解하고 그의 動機나 價値觀에 대해 나름대로의 把握을 하고 나면 그러한 理解와 把握이 없었던 때에 비하여, 비단 理論面에서 進步하였을 뿐아니라 人間面에서도 무엇인가 깊이를 더한 것같은 느낌을 갖는 自身을 發見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Bliss, C.J., "The Reappraisal of Keynes' Economics: An Appraisal," in M. Parkin, and A.R. Nobay (eds.), *Current Economic Problems*(The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 of Economics, Manchester, 1974),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2] Buchanan, J.M., J. Barton and R.E. Wagner, *The Consequences of Mr. Keynes*, London: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78.

[3] Chick, V., *The Theory of Monetary Policy*, London: Gray-Mills Publishing Co., 1973.

[4] Clower, R.W., "The Keynesian Counter-Revolution: A Theoretical Appraisal," in F. H. Hahn and F.P.R. Brechling (eds.), *The Theory of Interest Rat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5.

[5] Davidson, P., *Money and the Real World*, London: Macmillan, 1972.

[6] Harris R., and A. Seldon, *Not from Benevolevce—20 Years of Economic Dissent*, London: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77.

[7] Harris, S.E. (ed.), *The New Economics*, London: Dennis Dobson, Ltd., 1947.

[8] Harrod, R.F., *The Life of John Maynard Keynes*, London: Macmillan, 1951; Published in Pelican Books, 1972.

[9] ———, *Money*, London: Macmillan, 1969.

[10] Hayek, F.A.,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7.

[11] ———, *Choice in Currency*, London: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76.

[12] Hicks, J.R., *Critical Essays in Monetary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13] Hicks, J.R., *The Crisis in Keynesian Economics*, New York: Basic Books, 1974.

[14] ————, *Economic Perspectives—Further Essays on Money and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15] Hutchison, T.W., *Keynes versus the 'Keynesians'...?*, London: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77.

[16] Johnson, E.S., and H.G. Johnson, "The Social and Intellectual Origin of the General Theory,"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I (Fall 1974).

[17] Kahn, R., "The Relation of Home Investment to Unemployment," *Economic Journal*, June 1931; Reprinted in R. Kahn, *Selected Essays on Employment and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18] ————, "Some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Keynes' Though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XVI (June 1978), pp. 545-559.

[19] Kalecki, M., *Selected Essays on the Dynamics of the Capitalist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20] Keynes, J.M.,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II,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1919), London: Macmillan; New York: St. Martin's; for the Royal Economic Society, 1971.

[21] ————, Vol. IV, *A Tract on Monetary Reform* (1923), 1971.

[22] ————, Vol. V, *A Treatise on Money*: 1. *The Pure Theory of Money* (1930), 1971.

[23] ————, Vol. VI, *A Treatise on Money*: 2. *The Applied Theory of Money* (1930), 1971.

[24] ————, Vol. VII,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1973.

[25] ————, Vol. IX, *Essays in Persuasion* (1931), 1972.

[26] ————, Vol. XIII, *The General Theory and After: Part I. Preparation*, edited by Donald Moggridge, 1973.

[27] ————, Vol. XIV, *The General Theory and After: Part II. Defence and Development*, edited by Donald Moggridge, 1973.

[28] ————,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

mics, Feb. 1937; Reprinted in *Collected Writings*, Vol. XIV, pp. 109-123.

[29] Keynes, J.M., "The Theory of the Rate of Interest," in *The Lessons of Monetary Experience: Essays in Honour of Irving Fisher*, 1937; Reprinted in *Collected Writings*, Vol. XIV, pp. 101-123.

[30] Kregel, J.A. *The Reconstruction of Political Economy: An Introduction to Post-Keynesian Economics*, London: Macmillan, 1973.

[31] Klein, L.R., *The Keynesian Revolution*, New York: Macmillan, 1954.

[32] Leijonhufvud, A., *On Keynesian Economics and the Economics of Keyn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33] ————, *Keynes and the Classics*, London: The Institite of Economic Affairs, 1969.

[34] Lekachman, R.(ed.), *Keynes' General Theory—Reports of Three Decad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4.

[35] Malinvaud, E., *The Theory of Unemployment Reconsidered* (Yrjö Jahnsson Lectures) Oxford: B. Blackwell, 1970.

[36] Minsky, H.P., *John Maynard Keyn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5.

[37] ————, *The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 A Restatement*, London: Thames Polytechnic, 1978.

[38] Moggridge, D.E. (ed.), *Keynes: Aspects of the Man and His Work*, London: Macmillan, 1974.

[39] Nurkse, R., *Equilibrium an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40] Patinkin, D., *Keynes' Monetary Thought—A Study of Its Development*,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8., No. 1.), 1976.

[41] Robinson, J., *Collected Economic Papers*, Vol. I, Oxford: Blackwell, 1951.

[42] ————, Vol. II, 1960.

[43] ————, Vol. III, 1965.

[44] ————, Vol. IV, 1973.

[45] ————, *Economic Philosophy*, London: C.A. Watts & Co., 1962.

[46] ————,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London: Macmillan, 1963.

[47] Robinson, J., and J. Eatwell,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 New York: McGraw-Hill, 1973.

[48] Robinson, J., *Economic Heresies*, 1971; 宇澤弘文譯, 『異端の經濟學』, 日本經濟新聞社, 1973.

[49] ————, *History versus Equilibrium*, London: Thames Polytechnic, Autumn 1974.

[50] Schumpeter, J.A., "Keynes, the Economist," in S.E. Harris [7].

[51] ————, *Ten Great Economists* (1951), New York: Galaxy Book, 1965.

[52] Sweezy, P.M., "The First Quarter Century," in R. Lekachman [34].

[53] Viner, J., "Mr. Keynes on the Causes of Unemploy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 1936; Reprinted in R. Lekachman [34].

[54] Walters, A., *Economists and the British Economy* (Eighth Wincott Memorial Lecture), London: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78.

[55] Weintraub, S., *Keynes, Keynesians and Monetaris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8.

[56] 現代經濟研究會(日本), 『季刊現代經濟(18)—特集ケインズ經濟學』, 日本經濟新聞社, 1975.

[57] 宇澤弘文, 『近代經濟學の再檢討』(岩波新書 4), 岩波書店, 1977.

[58] 小宮隆太郎, 『ジョーン・ロビンソン現代經濟學の解剖』, 日本經濟新聞社, 1979.